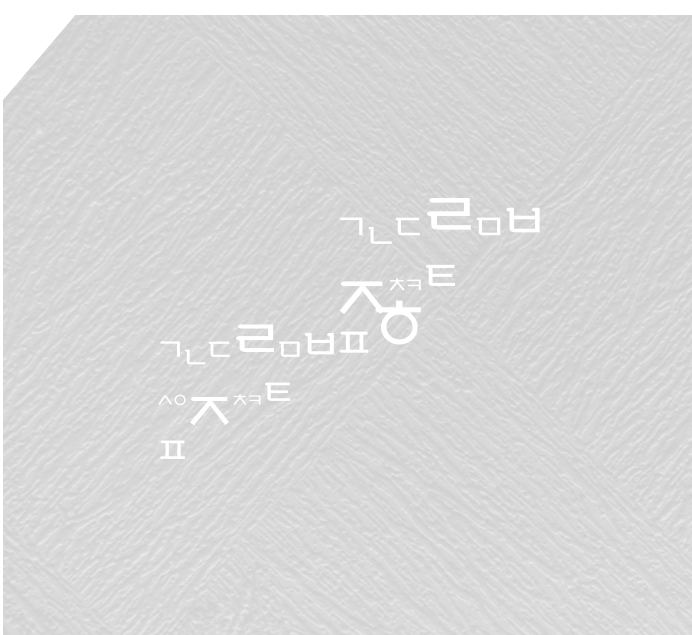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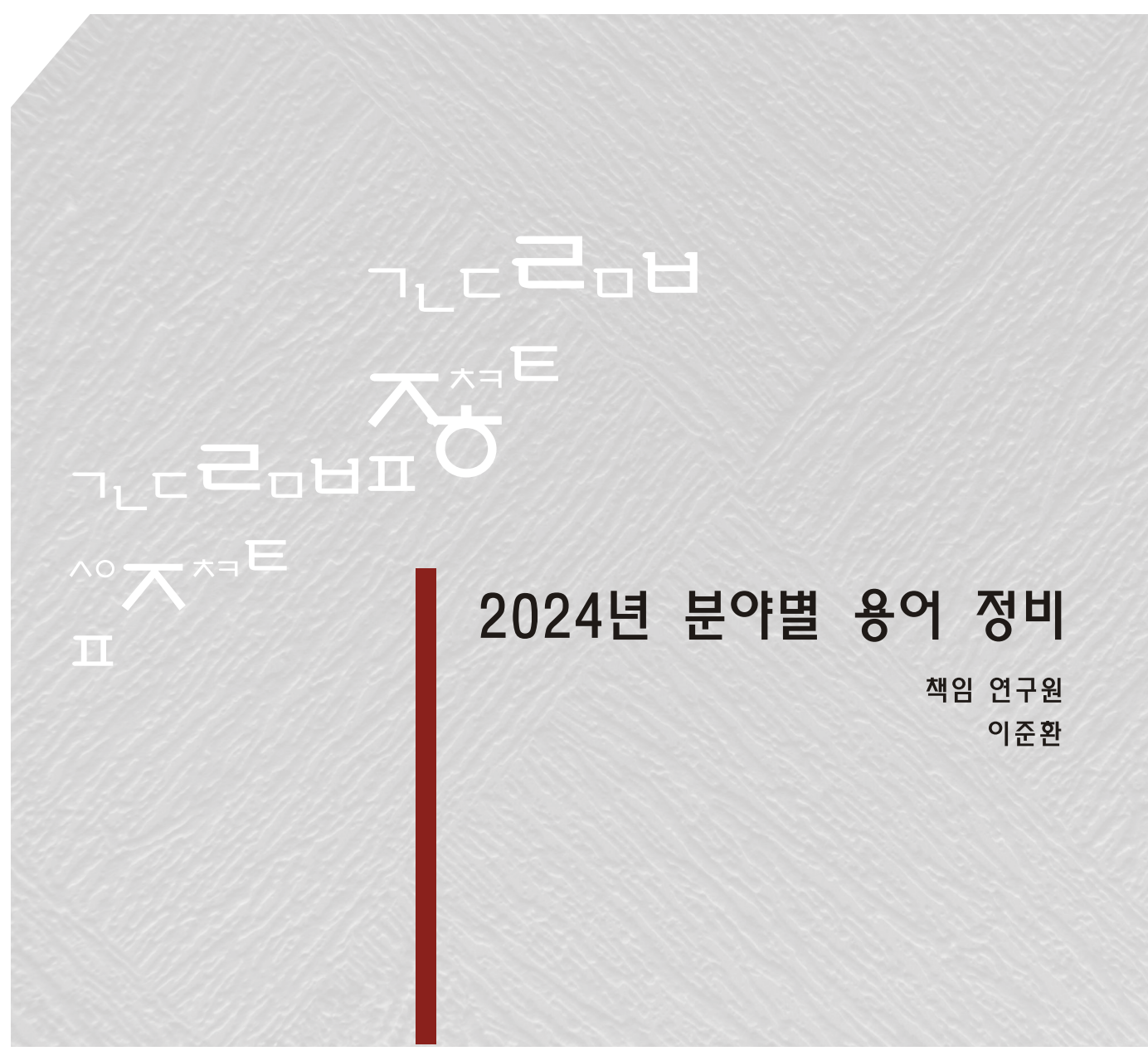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1027-01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24년 분야별 용어 정비



2024년 분야별 용어 정비

책임 연구원
이준환

국립국어원 2024-01-35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1027-01

국립국어원
주최
국립국어원
주최
국립국어원
주최

2024년 분야별 용어 정비

책임 연구원
이준환

국립국어원 2024-01-35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1027-01

2024년 분야별 용어 정비

책임 연구원

이준환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따라 2024년 분야별 용어 정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 기간: 2024년 3월 13일 ~ 2024년 11월 29일

2024년 11월 29일

책임 연구원: 이준환(전남대학교)

연구 기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KOR 컨소시엄 한국어문학연구소)

책임 연구원: 이준환(전남대)

공동 연구원: 이수진(전남대), 최준(전남대), 조재형(전남대), 백승주(전남대),
조경순(전남대), 유하라(성균관대), 임태운(남부대), 최지영(충실대),
김경표(전남대), 최윤(강원대), 공나형(전남대)

보조 연구원: 최옥정(전남대), 고상미(전남대), 김다솔(전남대), 이유미(전남대),
오지수(전남대), 전철한(전남대), 하현정(전남대), 진주(전남대),
미즈카이유카리(전남대), 고예린(전남대), 안진(전남대), 강영란(전남대),
박찬우(전남대), 김보미(전남대)

<국문 요약>

2024년 분야별 용어 정비

본 과업은 그간 독자적이거나 산발적으로 만들어 집적하여 이용하여 온 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언중들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과업의 첫 번째 목표는 『공간정보용어사전』, 『석탄용어사전』, 『원자력용어집』, 『항로표지용어사전』에 실린 12,225개 용어에서 정비 대상 용어를 고르고 표제어, 원어, 분야 분류,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 용어 정보를 갖춘 1만 개 이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데에 있다. 두 번째 목표는 공공 데이터 포털 등에서 공개된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6종 이상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여 용어 정비의 성격에 맞게 정비하는 데에 있다.

실제 정비 과업은 국립국어원의 지침에 따라 「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공간정보용어사전』에서 1,929개, 『석탄용어사전』에서 816개, 『원자력용어집』에서 3,914개, 『항로표지용어사전』에서 1,669개의 용어를 정비하였다. 용어집 4종을 정비하였으나 과업 목표치에 미치지 않아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에서 1,775개 용어를 추가하여 모두 10,103개 용어를 정비 완료하였다. 이 가운데 94.56%에 해당하는 9,554개의 용어에 사용 예시를 구축하였다.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는 연구진에서 대상 후보 자료 목록을 선별한 후 국립국어원과의 협의 아래 후보를 결정하고 기 구축 자료 구축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이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 후에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을 작성하고 확정하여 이에 따라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에 올리고 대상 용어(표제어), 원어, 정의문, 관련 용어 정보 등을 갖추는 방식으로 과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약산업 용어집』에서 1,033개,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에서 2,069개, 『환경시험검사용어집』에서 268개, 『유물용어해설』에서 780개, 『국립중앙도

서관 실무용어 해설집』에서 309개,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에서 653개 등 모두 5,112개의 용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더불어 용어집에 실린 표와 그림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온용어」 등의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파일화하였다.

정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어 정비 분과에서는 표제어는 한글로 표기하고 규범에 맞는 형태로 제시하였고, 구 이상의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으로 경계를 표시하였다. 원어는 정비 지침에 따라 입력하고, 『우리말샘』의 원어 정보를 참고하였다. 정의문은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하되 쉽고 분명하게 이해되도록 하였다.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닐 때에는 의미별로 표제어를 분리하고 정의문을 제시하여 표제어당 하나의 의미만이 대응하게 하였다. 각 용어는 의미, 계열어, 관련 용어의 분야를 고려하여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에 걸쳐 전문 분야를 판정하였다. 그리고 뉴스 기사, 정부 보도 자료 등에서 표제어의 의미와 품사 정보에 걸맞은 용어의 사용 예시를 찾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서로 어떤 관계인지 드러나도록 관련 용어 정보를 구축하였다.

전문 용어집 대상의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분과에서는 정비 대상이 되는 전문 용어집을 모두 엑셀 형태로 변환하고 미시 구조의 정보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 재배열하고 균일한 형식적 값을 갖도록 자동 또는 수동 형태로 처리하였다. 그런 후에 「용어 구축 시스템」에 용어집별로 탑재하여 한자, 영어 등의 원어 입력 작업을 하여 어종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였고, 용어의 형태와 정의문을 고려하여 일치여 연결 작업을 실시하였고, 표제어의 표기 및 띄어쓰기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정보 집필 및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점검하고 보완하였다.

주요어: 분야별 용어, 용어 정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용어 구축 시스템」, 표제어, 원어, 정의문, 분야 분류, 사용 예시, 관련 용어, 일치여 구축, 온용어

<Abstract>

2024 Project for the Refinement of Terminology by Specialized Field

This task was planned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the stable management of terminology by organizing and supplementing terminology resources that had previously been developed and used individually or sporadically, through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s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 The ultimate aim is to enhance the convenience and effectiveness of terminology use for the general public. The first sub-goal of this task is to select terms for maintenance terminology from 12,225 terms in the *Gongganjeongboyongeosajeon*(공간정보용어사전), the *Seoktanyongeosajeon*(석탄용어사전), the *Wonjaryeokyongeojip*(원자력용어집), and the *Hangropyojiyongeosajeon*(항로표지용어사전), and to reorganize more than 10,000 terms with headwords, original words, field classification, definitions, usage examples, and related term information. The second sub-goal is to digitize and database at least six professional glossaries available on public data portals, integrate them into the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 and standardize them in accordance with the system's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the actual maintenance task was carried out using the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 As a result, 1,929 terms were reorganized in the *Gongganjeongboyongeosajeon*(공간정보용어사전), 816 in the *Seoktanyongeosajeon*(석탄용어사전), 3,914 in the *Wonjaryeokyongeojip*(원자력용어집), and 1,669 terms in the *Ha*

ngropyojiyongeosajeon(항로표지용어사전). Four kinds of terminology were reorganized, but as they did not meet the task target, 1,775 terms were added in the *Hwangyeongmitmuyeokgwallyeonyongeojeonguijeongbo*(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 completing the terminology and maintenance of a total of 10,103 terms. Among them, 9,554 terms use examples, equivalent to 94.56% were constructed.

The research team selected a list of candidate data, determined candidates under consultation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obtained permission to use the data from an original data construction institution or organization. Subsequently, digitization guidelines were established, and in accordance with these guidelines, the data were structured to create entries in the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 for target terms, including headwords, original terms, definitions, and related terms. As a result, a total of 5,112 terms were digitized and entered into the database, including 1,033 from the *Jeyaksaneopyongeojip*(제약산업용어집), 2,069 from the *Sujawonmulhwangyeongsilmuyongeosajeon*(수자원물환경실무용어사전), 268 from the *Hwangyeongsiheomgeomsayongeojip*(환경시험검사용어집), 780 from the *Yumulyongeo haesed*(유물용어해설), 309 from the *Gukripjungangdoseogwansilmuyongeo haeseoljip*(국립중앙도서관실무용어해설집), and 653 from the *Gukjehaesagigujeonmunyongeojip*(국제해사기구전문용어집). In addition, multimedia materials such as tables and illustrations from the glossaries were separately processed into files for use on platforms such as *Onyonged*(온용어).

The main contents of the maintenance are as follows. In the Terminology and Improvement Division, the headwords were written

in Hangeul and presented in a form that conforms to the norm, and those above the phrase were marked with a boundary between the components using a caret (^). The original word was entered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guidelines, and the original word information of the *Urimalsaem*(우리말샘) was referenced. The definition sentence was made to make the most of the definitions of the already constructed data so that it could be easily and clearly understood. When the terminology has various meanings, the headwords were separated for each meaning, and the definition sentence was presented so that only one meaning per the headwords was responded to. Each term was assigned a major and middle fiel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taking into account the term's meaning, its word family, and the subject fields of related terms. In addition, usage examples that matched the meaning and part of speech of each terminology were identified and presented from sources such as news articles and government press releases. Finally, related terms for each target terminology were presented and refined to clearly show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Key-words: Terminology by Specialized Field, Terminology Refinement, Terminology Database Construction, *Terminology Construction System*, Headword, Original Word, Definition, Subject Classification, Usage Example, Related Term, *Onyongeo*

【요약문】

□ 과제명: 2024년 분야별 용어 정비

□ 과제 목표: 분야별, 기관별로 단순 집적하고 있는 용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에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용어 자료의 효용성, 유통성 향상 및 용어 사용자들의 편의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① 『공간정보용어사전』, 『석탄용어사전』, 『원자력용어집』, 『항로표지용어사전』,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에 실린 14,440개 용어에서 정비 대상 용어를 고르고 표제어, 원어, 분야 분류,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 용어 정보를 갖춘 1만 개 이상의 용어를 정비함.

②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공개된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6종 이상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여 용어의 표기, 원어, 일치어 등 기본 정보를 정비함.

□ 과업 수행 내용

(1) 용어 정비

① 용어 선정: 『공간정보용어사전』, 『석탄용어사전』, 『원자력용어집』, 『항로표지용어사전』,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에 실린 14,440개 가운데 정비 대상 용어를 선별함.

② 용어 정비: 표제어, 원어, 분야 분류(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정의문, 사용 예시(용례), 관련 용어에 걸쳐서 정비함.

③ 분야별 감수: 전문 분야 감수(용어의 내용 및 분야 분류)

④ 종합 검토 실시로 미시 구조 내의 정보의 일관성과 균질화를 추구함.

(2)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①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전문 용어집을 선정하고,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데이터를 구조화함.

②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여 표제어, 원어, 일치어 정보 등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과업을 진행함.

□ 용어 정비 지침: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을 보조적으로 사용함.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정비 지

침을 보완하고 보완한 바에 따라서 정비 내용을 수정함.

-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구축 지침: 연구진에서 지침을 만든 후에 국립국어원의 검토를 받아 세부 내용을 보완하여 완성함.

□ 정비 과업 실시 내용

(1) 용어 정비

- ① 정비 용어의 개수: 『공간정보용어사전』 1,929개, 『석탄용어사전』 816개, 『원자력용어집』 3,914개, 『항로표지용어사전』 1,669개의 용어를 정비 후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 1,775개 용어를 추가하여 모두 10,103개 용어를 정비 완료함.
- ② 표제어 정비: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등이 포함된 것을 모두 한글로 바꾸어 표기하고 규범에 맞게 제시하도록 하였음. 구 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띄어쓰기를 하고 ^으로 경계를 표시함.
- ③ 원어 정비: 표제어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원어 정보 칸을 비워 두고, 한자어와 혼종어 속에 포함된 고유어 연쇄의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처리에 따라 모두 붙여서 제시하였음. 인구어 등에서 온 것으로 로마자인 경우는 소문자로 쓰는 원칙에 따라 표시하되, 고유 명사이거나 독일어인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써서 표시함. 이때 고유 명사의 경우는 원어 정보를 안 밝힘으로 처리하였음.
- ④ 정의문 정비: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하되, 기구축 자료에 정의문이 없을 경우에 만일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경우라면 이곳의 정의문을 참고하여 활용하는 식으로 정비함. 특히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표상한다.”는 기본 지침에 따라 “~A. 또는 B.”와 같이 뜻풀이가 된 것들은 분리하여 별개의 표제어로 용어를 집필하여 제시함.
- ⑤ 분야 분류: 용어의 의미, 계열어, 관련 용어의 분야 분류를 참고하여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서 전문 분야를 판정함.
- ⑥ 사용 예시 제시: 정부 보도 자료, 정부 발행 보고서, 뉴스 기사, 학술 논문, 학술 서적, 특허 문서 등의 검색을 통하여 사용 예시를 확보하여 제시함. 표제어의 의미와 품사 정보에 걸맞은 사용 예를 찾아서 예시로 제시함. 사

용 예시는 9,554개의 표제어에 제시되어 구축 비율은 94,56%에 달함.

- ⑦ 관련 용어 구축: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표제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이는지를 드러내었음.

(2)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 ① 『제약산업 용어집』에서 1,038개,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에서 2,069개, 『환경시험검사용어집』에서 268개, 『유물용어해설』에서 788개,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 해설집』에서 305개,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에서 653개 등 모두 5,125개의 용어를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함.
- ② 정비 대상이 되는 전문 용어집을 모두 엑셀 형태로 변환하고 미시 구조의 정보를 일정한 질서에 따라 재배열을 하고 균일한 형식적 값을 갖도록 자동 또는 수동 형태로 처리함.
- ③ 「용어 구축 시스템」에 용어집별로 탑재를 한 후에 한자, 영어 등의 원어 입력 작업, 이에 따른 어종 정보의 표시 작업, 용어의 형태와 정의문을 고려하여 일치여 연결 작업을 실시함.

□ 외부 전문가 검토 실시 내용

- ① 전문 분야 전문가: 물리학, 수학 전문가 1명,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전문가 1명, 원자력,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전문가 1명, 건설교통 전문가 1명, 환경 전문가 1명, 지구과학 전문가 1명, 화학, 화공 전문가 1명, 사회과학 전문가 1명에게 모두 8,383개 용어의 내용 검토를 받고 검토 결과를 정비 내용에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정비 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였음.

□ 차 례 □

1. 정비 사업 개요	1
1.1. 정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
1.1.1. 정비 목적	1
1.1.2. 정비 필요성	2
1.2. 정비 범위	4
1.3. 정비 방법	5
1.3.1. 용어 정비	5
1.3.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8
2. 정비 대상 용어,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선정 및 정비 지침	11
2.1. 용어 선정	11
2.1.1. 정비 대상 원자료집의 실태 및 기본적 정비 방향	11
2.1.2. 정비 대상 용어 선별 기준과 절차	15
2.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집 선정	16
2.3. 용어 정비 지침의 수립	17
2.4.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의 수립	22
3. 정비 과업 진행 절차	25
3.1. 용어 정비	25
3.1.1. 기구축 자료 검토, 정비 대상 용어 선정	25
3.1.2. 정비 지침 보완	26
3.1.3. 용어 배분	28
3.1.4. 용어 집필	32
3.1.5. 연구진 내 용어 검토 및 보완	40
3.1.6. 전문가의 검토, 연구진의 검토 결과 반영	41
3.2.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44
3.2.1.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 선정	44
3.2.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작성	45
3.2.3.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배분 및 수행	49
4. 정비 과업 수행 결과	53
4.1. 용어 정비	53
4.1.1. 정비 완료 현황 및 통계	53
4.1.2. 표제어 및 원어 정비	56
4.1.3. 전문 분야 분류	61

4.1.4. 정의문 정비 및 보완	63
4.1.5. 사용 예시 구축 및 보완	67
4.1.6. 관련 용어 구축	68
4.1.7. 대역어 구축	69
4.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71
4.2.1.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현황 및 통계	71
4.2.2. 표제어 정비	72
4.2.3. 원어 및 일치어 정비	74
4.2.4. 기타 표제항의 정비	75
5. 결론	77

□ 표 차례 □

<표 1> 정비 대상 원자료 개관	11
<표 2> 용어집별 정비 대상 용어의 선정 개수	16
<표 3>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 개요	17
<표 4> 보조 연구원 참여율별 집필 완료 목표 개수	29
<표 5> 분야별 용어 정비 연구원 담당 팀 구성	40
<표 6> 외부 내용 전문가 검토 관련 정보	42
<표 7>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선정 자료 목록	45
<표 8> 연구원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수행 내용	50
<표 9> 정비 완료 분야별 용어의 개수	53
<표 10> 정비 완료 용어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 결과	55
<표 11> 표제어의 원어 처리	56
<표 12> “1.~2.”, “①~. ②”, “(1)~. (2)” 형식의 정의문의 분리 기술	63
<표 13>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자료별 용어의 개수	72
<표 14>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표제어 정비 예시	73
<표 15>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원어 정비 예시	74
<표 16>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기타 정보 정비 예시	75

□ 그림 차례 □

<그림 1>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분과원 등록하여 역할 설정하기	30
<그림 2>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집필자 활동 분과 확인하기	30
<그림 3> 「용어 구축 시스템」 집필자 작업창	31
<그림 4> 원자력, 에너지자원 분야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	43
<그림 5>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목록 선정 단계	44
<그림 6>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수행 단계	50

1. 정비 사업 개요

1.1. 정비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1.1. 정비 목적

이 연구는 그간 각 전문 분야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만들거나 산발적으로 만들어 집적하였거나 이용해 온 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가 적절히 유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써 산재해 있는 용어 자료를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용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언중들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과 효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이번 연구에서 정비할 대상이 되는 용어는 『공간정보용어사전』(2,073개 용어 수록), 『석탄용어사전』(1,188개 용어 수록), 『원자력용어집』(6,372개 용어 수록), 『항로표지용어사전』(2,592개 용어 수록) 등 4개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 총 12,225개이다. 이들을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지침에 충실하게 ① 원어, ② 정의문, ③ 분야 정보, ④ 사용 예시(용례), ⑤ 관련 용어에 관한 정보를 갖추어 정비하여, 총 1만 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원자료의 용어 정보 제시 방법이나 제시 내용의 종류 등에서 편차가 있으므로 정비 지침을 기준으로 일관되게 정비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용어 정비에 더하여 한글 파일이나 PDF 파일 등으로 된 데이터베이스 구조화가 필요한 용어집 6종을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갖춘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이 되는 용어집은 이용 허락 범위에 제한이 없거나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서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실린 전문 용어집으로 하고 최종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은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런 과업으로써 용어 정비가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언중들은 균질한 형태의 용어 정보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전문어 등의 용어 이

용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로 무엇보다도 용어가 지녀야 할 정확성이 확보됨은 물론이고 공공재적인 성격을 더욱 갖추게 될 것이다.

1.1.2. 정비 필요성

이번 용어 정비 사업은 다음의 네 가지 면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로 언중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여러 용어를 다듬어 언중의 이해 및 사용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언중들은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광범위하고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 네트워크와 더불어 통신망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언중의 소통 주제는 일상적 영역에서 전문적 영역까지 다양하다.

이 과정에서 언중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지만 정보 습득 과정에서 알게 되는 용어들이 생겨나며 필요에 따라 생활 속에 쓰임이 늘어나는 전문어 등의 용어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이전에는 일상의 관심사에서 멀었던 감염병 관련 용어나 공중 보건과 관련한 용어는 대중 매체와 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전문어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해져 공공 언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도화된 통신망을 활용하여 전문화된 정보를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일어나며 일반 언중들에게 전문어는 점차 생활과 밀접한 용어로 확산되고 있다. 정보 접근의 한정성으로 인해 기존에는 접하기 쉽지 않았던 다양한 전문 분야의 용어는 언중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며,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알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이번 정비 대상이 되는 석탄과 원자력은 삶의 편리함을 증대시키는 에너지 발전의 영역이며, 공간 정보와 항로 표지는 이동과 물류 유통 등과 관련한 영역으로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분야로 이해되므로 이에 관한 용어 정

비가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바이다.

두 번째로 용어의 의미와 사용 분야를 매개로 하여 용어를 유기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정비 대상이 되는 용어 중에는 해당 분야의 세부적인 전문어의 특성을 지니는 것도 있지만 전문어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언중들 다수가 같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용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와 맞물려 활용도가 높아지는 용어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전문어의 일반어화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익숙하게 쓰이는 용어를 의미와 사용 분야를 매개로 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정보 및 지식의 이해와 생산이란 면에서 모두 중요성을 지닌다.

세 번째로 언중이 쉽게 접하는 용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언어의 공공성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언중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전문어는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전문 분야의 지식이 많지 않아서 어려운 표현이나 특수 표현이 포함된 경우 언중이 이를 이해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전문어가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 언어로서 기능할 때 언중의 언어생활과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용어 이해에 대한 편의성이 증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전문어를 언중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히 정비하고 보완하여 언중들의 언어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한국어 사용자들이 공공 언어로 사용되는 전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 부문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를 수 있도록 공공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기구축 용어 자료의 효용성 및 유통성 증대를 위하여 용어 정비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정비 대상 용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간 국립국어원에서 정비한 용어집 목록을 확인하고 이외에 정비가 필요하거나 정비 여건이 갖추어진 용어집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된 용어집을 중심으로 정비 대상 후보 용어집을 선별하고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바로 정비 작업을 진

행할 수 있는 형태로 용어집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1.2. 정비 범위

위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진에서 수행할 과업의 연구 범위와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 (1) 공공데이터포털 내 용어 중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한 분야의 용어 정비
 - ①『석탄용어사전』, 『원자력용어집』, 『공간정보용어사전』, 『항로표지용어사전』에 실린 12,225개의 용어를 대상으로 정비 수행
 - ② 국립국어원에서 요구하는 미시 구조 정보를 모두 갖춘 항목 1만 개 제출
- (2) 용어가 갖추어야 할 필수 항목의 일관성 및 균질화를 지향한 정비
 - ①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정비 지침에 따라 정비 및 보완 실시
 - ② 원어, 정의문, 분야 정보, 사용 예시, 관련 용어 정보의 수정, 보완
 - ③ 연구진 내 상호 검토,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검토 및 보완
- (3) 「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한 용어의 정비
 - ① 「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한 단계별 정비를 순차적으로 입체적으로 실시
 - ② 「용어 구축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비 작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 ③ 「용어 구축 시스템」에 갖추어져 있는 메모 기능 등 각종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용어 정비의 정확성 및 적절성 고양
- (4) 용어의 공공성에 걸맞은 적정 수준의 난이도 여부 판단
 - ① 언중이 폭넓게 공유하는 용어의 성격에 걸맞게 대중성을 갖도록 정비 및 보완
 - ② 내용의 정확성을 유지하면서 용어의 공공성이 잘 담기도록 정비 및 보완
 - ③ 공공 언어, 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의 관점을 종합하여 용어 난이도의 적정성 판단
- (5) 지속적 용어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한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 ① 분야별 용어 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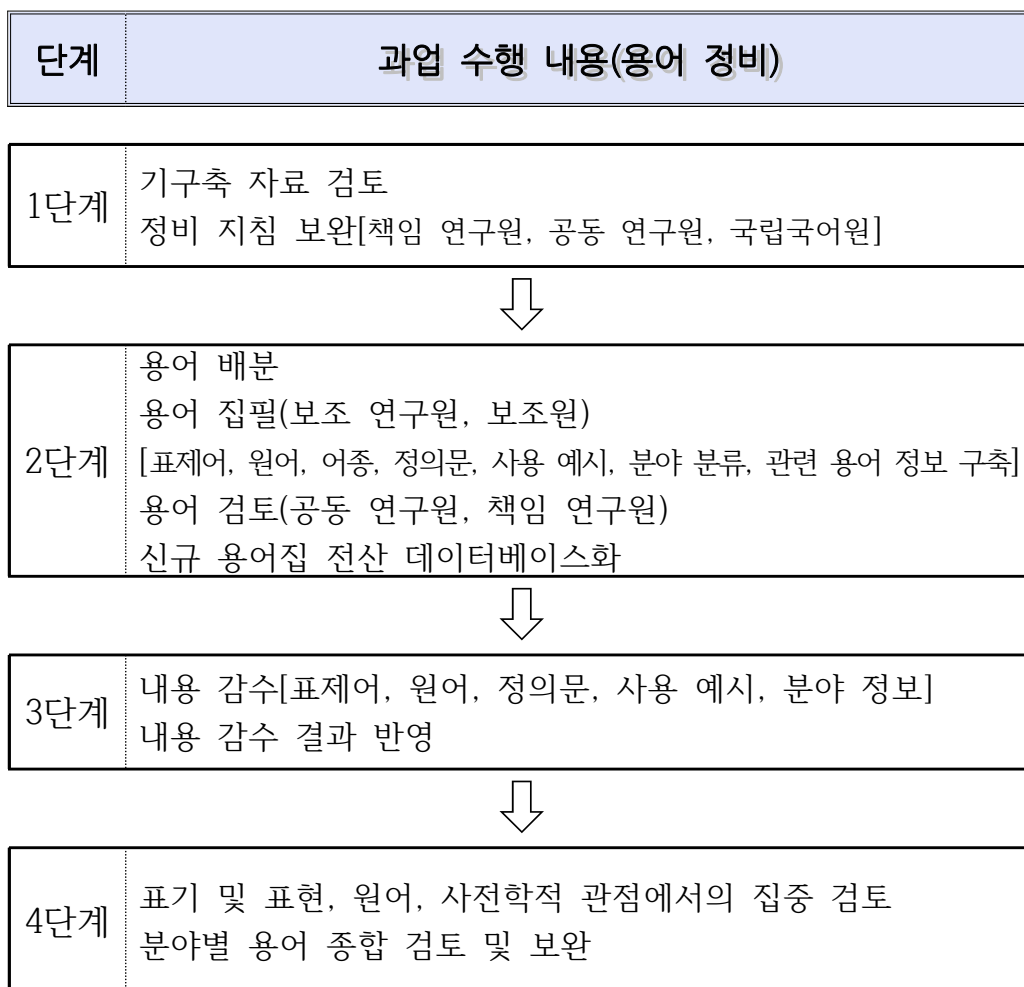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화되지 못하였고 내용 구조에서 편차가 컸던 용어집을 「용어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에 맞게 정비 실시

② 한글, PDF, DOC(DOCX) 형태로 된 용어집 중 6종을 선정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에 맞게 정비

1.3. 정비 방법

1.3.1. 용어 정비

분야별 용어 정비를 위한 작업은 4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모든 단계의 작업은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수행한다.



공공데이터포털 내 기구축 용어 중 국립국어원에서 선정한 용어 목록을 분석하여 정비를 수행한다. 정비할 용어에 대해서는 표제어, 원어, 분야 정보, 정의문, 사용 예시의 수정과 누락 정보를 추가하고 기구축 항목의 내용, 표기 표현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실시한다.

기구축 용어 중 언중들의 언어생활과 관련이 높은 용어를 고르고 미시 구조 구축 상황을 살펴 정비 대상 어휘 항목을 선정한다. 대상 용어의 정의문 구축 현황 및 사용 예시 확보 등을 고려하여 최종 정비 용어 목표치인 1만 개에 20%를 추가로 분배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보조 연구원, 공동 연구원, 외부 전문가에게 작업을 분배하고, 집필 및 검토, 작업물을 검수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수 과정에서 내용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책임 연구원이 정비 용어를 선정하는 과정으로 작업을 완료한다. 정비 대상 자료는 모두 시스템에서 정비 대상을 선택한 후 작업을 분배한다.

이번 과업에서도 정비 대상인 기구축 용어 사전 외에 신규 용어집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함께 진행된다. 이에 따라 용어 집필 및 검토 시작과 함께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를 진행하며, 필요한 정보들이 적절히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렇게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한 용어는 차후 정비 대상 용어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에서 용어 상태와 전처리 등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항목을 설정하고 전체 틀에 맞게 정제한다.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정비 대상 용어의 분야별로 설정된 과제의 원 자료를 확인한다. 각 과제별로 정비에 필요한 분과를 개설하고 정비 단계별로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 외부 전문가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분과 활동은 아래 표와 같이 진행된다. 표는 『원자력 용어집』을 대표로 제시한다. 분과는 ‘집필 및 검토 분과’, ‘감수 분과’, ‘선정 분과’의 3개 분과로 나누어 작업 관리와 작업 단계를 최적화한다.

과제	2024 분야별 용어 정비_원자력 용어집	
----	------------------------	--

집필 및 검토	분야 분류, 용어, 원어, 어종, 정의문, 사용 예시 정비 집필 및 집필 완료 항목에 대한 적절성, 정확성 등 1단계 검토	보조 연구원 공동 연구원
---------------	---	------------------



전문가 검토	검토 완료 항목에 대한 내용 전문가 검토 및 검토 내용 반영	외부 전문가 공동 연구원
-----------	-----------------------------------	------------------



선정	정비 완료 용어 최종 선정	책임 연구원
----	----------------	--------

각 단계별 수행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과제 생성과 집필 대상 자료 분배

원활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모든 작업자는 「용어 구축 시스템」에 가입한다. 그러면 관리자는 분과원들의 역할에 따라 ‘집필’, ‘검토’ 권한을 설정한다.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어휘는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보조 연구원이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집필자로 설정하여 배분한다.

2) 정비 대상 용어 집필

집필자들은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표제어의 분야 분류, 지침을 바탕으로 표제어의 분석 및 보완, 표기 표현 검토·보완, 원어 정보 검토 및 정비·보완, 정의문 검토·보완, 사용 예시 검토·보완을 담당하고 공동 연구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용어를 정비한다.

3) 집필 완료 용어 검토

검토자는 집필 완료 항목에 대해 ‘검토 완료’와 ‘보완 요청’을 한다. ‘보완 요청’의 경우 집필자가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하고 확인 단추를 누른다. 이 과정을 거쳐 ‘1단계 검토 완료’가 되면, 다음 단계인 감수 분과로 이동한다.

4) 감수 및 용어 최종 선정

공동 연구원의 검토가 완료된 용어는 내용 전문 검토의 대상이 된다. 내용 검토를 할 전문가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엑셀로 출력된 정비 결과물을 가지고서 용어의 형식과 내용적인 면에서 검토를 진행한다. 이렇게 하여 검토가 완료된 용어는 공동 연구원이 감수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 용어를 검색하여 적절히 반영한다. 이렇게 감수 및 보완이 완료된 용어를 종합 검토와 마무리 단계에서 표기와 표현의 일관성, 균질성, 정보 제시 방법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고 최종 선정 단계로 넘어간다. 책임 연구원은 정비가 완료된 용어를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1.3.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는 비구조화된 용어 자료집을 구조화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설정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1)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용어 자료집 확정 단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집 목록 선정의 우선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충족한 것들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과 협의하여 대상 자료집을 결정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한다.

(1) 공공성: 자료집 구축 및 공적 활용의 의의를 살릴 수 있는 자료집

- (2) 자료집 분야의 다양성: 기구축 자료 및 신규 구축 자료의 분야를 고려하여 자료집의 분야 속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집
- (3) 자료집 항목의 다양성: 표제어, 용어 해설, 원어 등의 표제항 정보가 다양하게 수록된 자료집
- (4) 저작권 문제 해결: 2차 저작물 활용 및 배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저작권 확보가 가능한 자료집

2) 데이터베이스화 지침 작성 단계

개별적인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용어 자료집별로 상이한 정보 항목 현황을 확인하고 구성 항목을 분석하여 용어 정비 사업의 표제항과 대응되는 정보 항목과 그렇지 않은 정보 항목을 구분하여 개별 주석 대상의 정보 항목에 대한 개체를 한정하여 문서의 구조를 설계한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지침을 바탕으로 한 주석은 대체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주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주석 작업자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3) 정보 항목 주석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단계

아래아 한글, 엠에스 워드, 피디에프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집 데이터에서 정보 항목을 추출하여 구조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은, ① 텍스트 추출 과정, ② 추출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주석 작업, ③ 주석 정보를 바탕으로 한 최종 데이터베이스화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

최종적인 데이터베이스화의 단계에서 구현될 데이터베이스 형식은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국립국어원과 협의한 바에 엑셀 형식의 스프레드시트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행한다.

이런 단계를 거쳐 수행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화의 과업 내용을 단계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과업 수행 내용
----	---------------------

1단계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용어 후보 자료 및 목록 정리(책임·공동 연구원)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용어 자료집 저작권 협의(공동·책임 연구원)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용어 자료집 확정(책임·공동 연구원, 국립국어원)
-----	---



2단계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용어 자료집 구성 항목 검토(공동·책임 연구원) 데이터베이스 형식 확정 및 구조 설계(공동 연구원)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작성 및 검토(책임·공동 연구원)
-----	---



3단계	데이터 형식 변환 및 추출(공동·보조 연구원) 「용어 구축 시스템」 표제항별 데이터 할당(공동·보조 연구원) 표제항별 내용 정비(보조 연구원) 표제항별 내용 정비 결과 검토(공동 연구원)
-----	---

2. 정비 대상 용어,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선정 및 정비 지침

2.1. 용어 선정

2.1.1. 정비 대상 원자료집의 실태 및 기본적 정비 방향

이번 과업에서 정비 대상이 된 용어가 담긴 원자료집은 모두 4개이며, 이들에 실린 용어는 12,225개이다. 자료집 제공 기관별로는 국토지리정보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해양수산부의 것으로 각각 1개씩이다. 정비 대상 원자료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 1> 정비 대상 원자료 개관

원자료집명	제공 기관	용어 수	세부 구축 정보
공간정보용어사전	국토지리정보원	2,073	용어, 용어 설명, 한자, 영문
석탄용어사전	대한석탄공사	1,188	용어, 용어 설명, 유사 용어
원자력용어집	한국수력원자력	6,372	용어, 용어 설명, 영문
항로표지용어사전	해양수산부	2,592	용어, 용어 설명, 영문
용어의 총 개수		12,225	

위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원자료집에 실린 용어들에 달린 정보를 보면 용어 설명은 대체로 잘 제시된 면을 보이나 원어 정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고, 사용 예시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렇기에 이와 같이 정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정보를 찾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정보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비 지침에 맞게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적절히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현황 파악에 바탕을 두고, 본 과업에서는 각 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일관성이 있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정비 작업을 진행하였다. 용어 정비의 전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표제어 및 원어

- ①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표기: 한글 표기로 바꾸고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 표기는 원어 정보 표시를 하는 곳에 반영한다.
- ②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맞춤법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 ③ 외래어 표기법: 정비 대상 용어 가운데에는 외래어로 간주되는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적절히 표기된 것 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 가운데에는 관용 표기를 허용하는 것 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용어의 도입 및 사용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원자료에 대상 용어가 규범 표기, 비규범 표기로 모두 제시된 경우 규범 표기를 대상 용어로 삼고, 비규범 표기나 관 용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에 입력한다.

② 정의문

- ① 기구축 자료에 백과사전적 정보가 실려 있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에 제시되 어 있는 방식으로 언어적 정의를 먼저 내린 후에 백과사전적 정보를 뒤에 부연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일반적 정의가 먼저 제시되고 난 후 에 특수한 정의가 더해져서 용어의 다양한 쓰임을 볼 수 있도록 한다.
- ② 기구축된 정의문이 없는 경우 정의문은 2어절 이상으로 마련한다. 이때 정 의항을 기본으로 하되 설명항을 덧붙일 수 있다. 새로운 정의문은 각종 용 어 사전이나 『우리말샘』, 백과사전을 두루 참고하여 작성한 후, 내용 분야 전문가의 감수를 받아 정확성 및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한다.
- ③ 기구축된 자료의 정의문이 단어 또는 구로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 단어 또 는 구의 정의를 참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 ④ 번호를 매겨 제시된 기구축 정의문은 번호를 삭제하고, 두 번째 이하의 정 의문은 정의문의 개수만큼 표제어를 새로 만들어서 별개의 표제어에 해당하 는 정의문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⑤ 표제어의 품사 정보에 맞게 정의문을 작성한다.
- ⑥ 표제어 또는 표제어 구성 요소가 동일한 형태가 가능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다.
- ⑦ 정의문을 끝맺을 때에는 마침표(.)를 찍어 기술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한다.

- ⑧ 띄어쓰기 등 맞춤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 ⑨ 정의문 안에 쓰인 한자어, 외래어 등을 한글로 표기하였을 경우에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괄호 안에 원어 정보를 병기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3 분야 정보

- ① 정비 대상이 되는 모든 용어들은 원자료에 구축되어 있는 정의문의 내용과 유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 과학 기술 분류 체계(2023년 개정)」를 참고하여 대분류와 중분류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 내용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정확한 분류를 도모하도록 한다.
- ② 정의문의 내용만으로 분야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어, 대역어, 사용 예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가며 판단하도록 한다.
- ③ 국가 과학 기술 분류 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만으로 용어의 전문 분야를 분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제 작업에서는 소분류까지를 검토하여 정확한 전문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표제어의 형태만을 가지고 분야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용어가 한 분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경우가 널리 나타나서이다. 이에 의미를 기준으로 분야를 판단함과 동시에 전문가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에 전문가에게 감수를 청하도록 한다.
- 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 전문 분야 분류 지침」 최신판을 가까이 두고 잘 참고하며 분야 분류의 자의성을 줄이고 일관성 있게 하며, 계열어 및 관련 용어 사이에 분야 분류가 모순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4 사용 예시

- ① 사용 예시 구축은 정비 대상 용어의 실제 의미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사용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공공용어 정비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번 ‘2024년도 정비 대상 용어 자료집’의 모든 자료에는 사용 예시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②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 용어의 사용 예시를 수집하되, 대상 용어가 적절한 문맥에서 사용된 예시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본 연구진은 2021~2023년도 용어 정비 과제를 수행한 정비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적이며 효과적인 자료 수집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

예시 구축의 양적·질적 수준을 높인다.

가. 사용 예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 예시 검색 시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이처럼 함으로써 사용 예시가 지닌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 (1) 관련 부처 발간 자료(각종 자료집, 보도 자료, 공문)
- (2) 여러 법령에서의 사용 예(국가 법령 정보 센터에서 검색)
- (3) 신문, 뉴스 자료(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종합 검색)
- (4) 관련 분야 논문 자료(RISS, KCI, SCIENCE ON 등에서 검색)
- (5) 말뭉치 자료(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의 말뭉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 연구원 여러 말뭉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현대 한국어 용례 검색 등)
- (6) 전문어 사전(정부24 행정전문용어사전,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등)

나. 위 (가 1), (가 2)의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검색 도구(프로그램)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여러 PDF 파일의 통합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

- (1) PDF-Xchange Viewer
- (2) Acrobat Reader
- (3) SeekFast
- (4) Foxit Reader
- (5) UltraFinder

③ 사용 예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침에 따른다.

- (1) 용어의 정의, 용도, 사용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한다.
- (2) 사용 예시는 용어(표제어)의 형태와 완전히 동일한 것, 즉 다른 구성체로 판단되지 않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나 여의치 않은 경우 용어를 구성 요소로 하는 더 큰 구성체를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격표’의 사용 예시를 제시할 때, ‘할인 가격표’, ‘주문 가격표’, ‘가격표 부착’, ‘가격표 제거’ 등과 같은 것은 다른 용어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르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고, ‘할인된 가격표’, ‘가격표의 부착’, ‘가격표의 제거’와 같은 식으로 쓰여 ‘가격표’의 독립이 분명한 것들을 제시한다.
- (3) 사용 예시는 기본적으로는 문장 단위로 제시한다. 단, 문장 예시가 확보되지 않고 구 단위 사용 예시만이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구 단위 사용 예시를 제시하되 국립국어원의 정비 지침에 따라 형식을 잘 지킨다.
- (4) 사용 예시 입력 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ㄱ. 사용 예시는 국어 어문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등록한다.
- ㄴ. 사용 예시에 인명, 회사명, 지역명 등 고유 명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O (영문 대문자)’로 바꾸어 익명 처리한다.
- ㄷ. 사용 예시의 출처를 입력할 때는 출처 자료의 종류를 선택한 뒤, 기관명, 날짜(연월일), 자료명, 제목, 쪽수 등의 상세 정보를 입력한다.(아래의 <사용 예시 출처 제시 순서> 참고)
- ㄹ. 신문 자료 등에서 사용 예시를 찾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주요 매체의 자료를 활용한다.
- ㅁ. 사용 예시도 ‘대상 용어’ 항목과 동일하게 표기한다.

5 관련 용어 정보

- ① 관련 용어는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로 의미와 분야 분류를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 ② 일치어를 연결할 때에는 대상 용어와 형태 및 개념(원어, 의미 등)이 일치해야 함을 주의한다.
- ③ 관련 용어를 보완할 때에는 표제어와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1.2. 정비 대상 용어 선별 기준과 절차

이번 정비 대상 용어의 기구축 자료집은 전체 12,225개로 정비 과업 목표 수량 10,000개를 달성하기 위해 기구축 용어를 작업 대상에 최대한 선정하고자 하였다. 정비 항목을 충실히 보완하기 위해 용례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비하여 대상 용어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구축 자료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 대상 용어를 선별하였다. 기구축 자료집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 및 생활 환경과 관련도가 높은 것,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것을 선별하고 같은 조건이라면 용어 정보가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들을 우선적인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하였다. 다만 1차 정비 후 목표 용어 개수 10,000개에 미치지 못해 용어집 1종을 추가하여 정비하였다. 추가 용어집은 『환경 및 무역 관련 용어 정의 정보』이며 해당 용어집에서 미정비된 용어 6,721개 중 2,789개를 선정하여 정비하였다. 최종 정비 대상 용어는 14,440개이다.

〈표 2〉 용어집별 정비 대상 용어의 선정 개수

	기구축 용어집명(수록 용어 개수)	→	최종 정비 대상 용어 개수
1	『공간정보용어사전』(1,188개)	→	2,193개
2	『석탄용어사전』(2,073개)	→	1,164개
3	『원자력용어집』(6,372개)	→	5,690개
4	『항로표지용어사전』(2,592개)	→	2,604개
5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6,721개)	→	2,789개
	누계		14,440개

2.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집 선정

지속적인 용어 정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워드 프로세서, 피디에프, 정제되지 않은 엑셀 등의 형태로 된 전문 용어집 데이터 중 6종을 선정하여 국립국어원 「용어 구축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공 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 및 공공 기관 누리집 등의 경로에서 확인되는 전문 용어집 검색을 통해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들 중에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의 영역 배분, 적정한 용어의 양과 질 등을 고려하여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통해 목록을 확정해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수행한다. 제안 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6종의 최종 목록을 확정하여 총 5,000개 내외의 용어를 대상으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3〉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 개요

	자료명	예상 용어 수	저작권 관리 기관
1	제약산업 용어집	1,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2,018	환경부
3	환경시험검사용어집	268	국립환경과학원
4	유물용어해설	728	문화재청
5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 해설집	305	국립중앙도서관
6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620	해양수산부
합계		4,950	

2.3. 용어 정비 지침의 수립

연구진에서는 용어 정비 작업의 지침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을 활용한다. 이 지침은 ‘기본 지침’과 ‘항목별 세부 지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 지침’은 이 정비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항목별 세부 지침’은 미시 구조에 들어갈 내용이 따라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지침에서 용어 정비에서 미시 구조 범주별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래와 같다.

① 용어 등록

1. 용어의 띄어쓰기: 용어의 띄어쓰기가 원자료집과 『우리말샘』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처리를 따른다. 『우리말샘』에 등재된 말이 아니라면 원자료집에 따르되, 원자료집에 구로 제시된 경우에는 ^을 이용하여 반드시 띄어서 표시한다.
2. 외래어 띄어쓰기: 『우리말샘』에 없는 외래 용어인 경우의 띄어쓰기는 원어

의 띄어쓰기를 따른다.

3. 복합어의 표시: 용어가 『우리말샘』에서 복합어로 제시된 경우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며, 직접 구성 요소의 경계를 표시하는 데에 쓰인 ‘-’는 용어 정비에서는 표시하지 않는다.
4. 외래어 표기
 - ① 용어의 규범 표기가 『우리말샘』이나 미확정이고 국립국어원 누리집 속의 외래어 용례 찾기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원자료집에 제시된 표기가 유일레일 경우 원자료집에 제시되어 있는 표기 형태로 입력한다.
 - ② 원자료집에 미확정 표기가 여럿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규범 표기에 가까운 것을 입력하고 나머지 것은 검색용 이형태로 입력한다.
 - ③ 외래어 표기법의 규범성 판단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를 가장 우선하고 이에 이어 『우리말샘』의 표기를 따른다. 따라서 이 둘의 표기법이 다를 때에는 국어원 누리집의 외래어 표기법 용례를 따른다.
5. 한자 정보가 『우리말샘』 등을 참고하여 판단하여 본 결과 잘못된 것이 맞다면 수정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말샘』의 원어 정보를 확인하도록 한다.
6. 동일한 표제어가 존재할 때 정의문도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골라 분과 반려 요청을 한다.
7. 원자료에 동의어 두 개가 하나의 대상 용어로 나열된 경우에는 각 용어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용어로 집필하고, 동의어로 연결한다.

2 분야 분류

1. 분야 분류 작업은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해설서’와 ‘전문 분야 분류 지침(용어 통합 데이터베이스)’을 토대로 실시한다.
2. 분야 분류는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대분류와 중분류만을 표시 대상으로 한다. 이 부분 이외의 분야 분류(정부 기능 분류 체계, 우리말샘 전문 분야)는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집필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말샘 전문 분야’ 등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3. 집필 대상 용어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할 때에,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에 실린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분류를 참고하여 분야 분류를 하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대한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다.

③ 정의문 정비 및 제시

1. 원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되, 용어의 개념 이해에 불필요해 보이는 것은 덜어 내도록 한다. 사전의 정의문이 제시되는 틀에 맞추어 용어의 핵심 내용이 잘 표현되고, 유개념과 종차가 잘 드러나도록 정의문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2. 표제어의 품사 정보에 맞게 정의문이 끝나도록 작성한다. 정의문 다음에 부가문이 있을 경우에는 부가문은 반드시 “~다.”와 같이 온전한 서술문으로 끝내도록 한다.
3. 여러 문장으로 정의문을 제시할 경우에 사전적 정의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문장에 표제어의 핵심적인 의미가 들어가도록 한다. 그리고 정의문에는 표제어 또는 표제어의 구성 요소가 가능한 한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집필한다.
4. 정의문은 반드시 어문 규범에 맞게 표준어를 쓰고 띄어쓰기를 옳게 하여 작성한다.
5. 정의문의 끝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는다.
6. 하나의 정의문에는 하나의 개념만을 담도록 작성한다. 이에 따라 어떤 표제어가 여러 개념을 지니는 다의어인 경우에는 개념별로 용어를 추가하여 집필하여 개념의 개수만큼 용어가 집필되도록 한다. 원자료의 정의문이 ①, ② 등의 번호로 구분되어 기술되어 있으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정의문이 변별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면 하나는 삭제하도록 한다. 의미가 확실하게 변별될 수 있는 것이라면 별개의 용어로 분리하여 집필하되 두 의미가 실재함을 보이는 사용 예시를 찾아 넣도록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사용 예시에서 볼 수 있는 의미에 해당하는 용어만을 집필하도록 한다.

④ 사용 예시 작성 및 제시

1. 사용 예시는 원칙적으로 한 문장만 제시한다. 한 문장만 제시함에 따라 주어나 목적어 등이 빠져서 불완전한 문장이더라도 문장의 틀을 바꾸는 등의 수정을 임의로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불완전 문장이 제시됨에 따라 문맥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어 또는 목적어를 파악할 수 있는 앞 문장이나 뒤 문장을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2. 사용 예시는, 문장의 형식은 원문대로 하되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은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다.

3. 사용 예시는 표제어와 형태가 일치하는 것을 제시한다. 표제어의 형태가 쓰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제어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복합 형태의 용어가 쓰인 것이라면 표제어와 형태 일치가 일어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용 예시로 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적 영향’이라는 표제어의 사용 예시로 ‘외적 영향 분석’, ‘외적 영향 평가’, ‘외적 영향 요소’ 등을 제시하게 되면, ‘외적 영향 분석’, ‘외적 영향 평가’, ‘외적 영향 요소’ 등이 표제어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사용 예시 제시는 삼가도록 한다.
4. 사용 예시를 작성할 때 인명, 지명, 사명 등에 비식별 표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용 예시와 출처 모두에서 일관되게 처리한다.
5. 비식별 표시의 경우 국가 기관이나 공공 기관, 공기업 등의 경우는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부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때 내용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노출할 수 있다. 다만 사기업이나 개인 등의 경우는 민감한 것이므로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6. 사용 예시가 부정적 문맥일 경우에, 도/시/군/구, 정부 부처 등 모두 비식별화 처리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맥락을 지닌 예시를 제시한다.
7. 사용 예시를 찾기 어려운 것은 <집필 완료> 대신 그 상태로 두어 <집필 중>으로만 놓아둔다.
8. 사용 예시가 문장인 경우에는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를 찍는다. 구 단위 사용 예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어느 조항의 일부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9. 사용 예시에 제시된 정비 대상 용어는 진하게 표시한다. 용언의 경우는 어미를 포함하여 진하게 표시하고 체언의 경우는 조사를 제외한 용어 부분만 진하게 표시한다.
10. 사용 예시 검색으로 얻은 결과가 한자로 표시된 것은 한글로 바꾸어 예시를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 ‘한글(한자)’ 형태로 이 둘을 병기할 수 있다.
11. 가운데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클릭하여 해당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12. 정부 부처의 발간 자료 출처를 제시할 때, 발간 자료 제목을 그대로 입력한다. 발간 자료의 제목에 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입력한다.

13. 기사 등이 작성되거나 발간된 일자를 연월일로 표시할 때 십의 자리에 ‘0’은 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22. 09. 03.’와 같이 표시하지 않고 ‘2022. 9. 3.’과 같이 표시한다.
14. 사용 예시의 출처도 어문 규범에 따라서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표시한다. 규범에 맞지 않게 된 기사의 제목 등은 규범에 맞게 수정하여 제시한다.
15. 마땅한 사용 예시가 없어 네이버 백과사전 등에서 예시를 찾아 제시한다⁴면, 출처를 기타로 처리하고 사전명을 기입한다. 이때 사용 예시 출처는 기타에 ‘사전명’, ‘검색어명’의 순서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

1. 정의문이나 사용 예시의 구 단위 전문어 띄어쓰기는 규범에 따라 띄어 쓰도록 한다. 특히 사용 예시에서 등장하는 표제어의 띄어쓰기가 표제어로 제시된 형태의 띄어쓰기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2. 사용 예시에서 단체명은 하나의 단위를 가리키는 것이 명확하다면 일반적인 쓰임에 근거하여 붙여 쓰도록 한다.
3. 한자어, 고유어(혼종어에 포함되어 있는 고유어)의 경우는 원어 표시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예) 측정^정도와^무게의^관계 → <한자>測定程度<고유어>와무게의<한자>關係
4. 대상 용어, 정의문, 사용 예시 등에 로마자나 한자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어기본법」 제14조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한다.
5. 사용 예시, 정의문 등에 사용할 문장 부호 중 자판의 설정 환경 등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것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열어 이곳에 제시된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운뎃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이 있다.

⑥ 일치어의 판별 및 처리

1. 일치어를 추가할 때에는 형태(표기)와 의미가 같아야 한다. 아직 분야 정보가 확정되지 않은 용어들이 있으므로 정의문에 담긴 개념이 같다면 분야 정보나 띄어쓰기 등의 표기가 다르더라도 일치어로 처리한다.
2. 정의문에 관련 용어가 제시되어 있지만, 관련 용어에서 검색이 되지 않으면

1) 「국어기본법」 제14조: 공공 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관련 용어는 등록하지 않는다.

3. 원자료의 설명과 『우리말샘』의 설명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개념이 같으면 일치어로 처리한다.

7 대역어

1. 대역어가 로마자인 경우, 소문자로 쓰는 것이 원칙이나, 고유 명사, 독일어의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
2. 대역어에 본말과 그 약어를 함께 입력할 때 두문자어(로마자)로 된 약어는 마침표 없이 대문자로 제시하고, 본말 중 약어에 해당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3. 표제어가 외래어이고 대역어도 이와 같은 형태인 경우에는 대역어를 제시하지 않는다.

2.4.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의 수립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대상 자료의 원저작자가 구축한 전문 용어 자료집의 정보를 오염시키지 않고 전산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작업 목표이다. 자료집 구성 항목을 분석하여 용어 정비 사업의 표제항과 대응되는 정보 항목과 그렇지 않은 정보 항목을 구분하여 개별 표제항 할당 대상의 정보 항목에 대한 개체를 한정하여 문서의 구조를 설계한다. 이때 특정 표제항에 할당되기 어려운 자료집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참고 사항’ 표제항에 적절히 구분되어 입력될 수 있도록 개별 자료집의 특성에 맞게 지침을 작성한다.

이에 대상 자료집의 내용을 누락하지 않고 일관되게 표제항 할당을 할 수 있도록 대상 자료집의 속성에 따라 수록 정보 항목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을 작성하였다. 이 단계에서 작성되는 지침을 바탕으로 한 표제항 할당은 대체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표제항 할당 및 정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1차 작업자의 용이성과 편의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다음은 ‘제약산업 용어집’의 지침 예시이다.

① 구축 목적

1. 기구축 용어 자료를 전산화하여 국립국어원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비 대상 항목

1.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항목은 기본적으로 용어(표제어), 원어, 정의문 및 관련 용어(일치어)이며, 기타 추가적인 정보는 최대한 기존의 정보 항목에 맞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어: 용어 정비는 「국립국어원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서」의 ‘② 대상 용어’ 항목의 지침을 따른다.
3. 원어 및 어종: 원어 정비는 「국립국어원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서」의 ‘③ 원어’ 항목의 지침을 따른다.
4. 정의문: 각 대상 자료의 정의문의 원래 형태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일치어: 대상 용어와 형태 및 개념(원어, 의미)이 일치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일치어 정보를 입력한다.

③ 일괄 업로드 작업 시 대상 자료별 정보 항목 대응 관계(제약산업 용어집의 경우)

- 용어명→용어*
 - 영문 표기→대역어 또는 원어**
 - 국문 표기→용어***
 - 용어설명→정의문
 - 분야→참고사항
 - 자료집명(제약산업 용어집(한국보건산업진흥원))→정의문 출처
- * ‘용어명’의 용어가 로마자로 표기된 경우, 「국립국어원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서」의 ‘② 대상 용어’ 항목의 지침을 따라 한글로 입력한다.
- ** ① ‘용어명’의 용어가 로마자로 표기되어 있는 용어의 ‘영문 표기’는 ‘용어명’과 함께 원어 정보 항목에 입력한다.
- ② ‘용어명’의 용어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용어의 ‘영문 표기’는 대역어 항목에 입력한다.

*** ‘국문 표기’ 정보 항목이 있는 용어의 경우, 원 ‘용어명’에 대한 기술과 별도로 ‘국문 표기’를 독립된 용어로 추가하여 기술하고, 하위 정보 항목의 정보는 원래 용어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술한다.

※ 자료집의 24쪽~97쪽에 수록된 용어 및 정보 항목의 정보를 과업 대상으로 삼는다.

※ 정의문 마지막에 마침표(.)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기입한다.

※ 정의문에 원문자 등의 숫자로 구분하여, 다의 기술을 한 경우, 별도의 줄을 생성하여 독립된 표제어로 기술한다.

※ ‘참고사항’ 내에 하위 정보 항목의 유형 이름을 적고, 쌍점과 공백(:)을 구분자로 하여 내용을 입력한다.

- 참고 사항에 둘 이상의 정보 항목 유형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 공백, 세로선, 공백(|)을 정보 항목 유형 간의 구분자로 사용한다.

- 참고 사항의 개별 정보 항목 유형 내에 둘 이상의 항목을 입력하는 경우, 쉼표와 공백(,)을 항목 간의 구분자로 사용한다.

- 참고 사항에서 제시하는 쌍점, 세로선, 쉼표, 공백 등 구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자판을 사용하여 입력한다.

- 참고 사항에 둘 이상의 정보 항목 유형을 입력할 때, 정보 항목 유형의 배열은 ‘분야>순화 용어’의 순서로 입력한다.

(예) 분야: 민속학 | 순화 용어: 농촌생활도, 경직도

[입력 예시]

IND application

영문표기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용어설명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인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유효성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들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식약처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

가교시험

영문표기Bridging Study
용어설명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실험들

용어

아이엔디 애플리케이션

원어

IND(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정의문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인체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유효성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해당 의약품들을 사용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식약처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과정.

정의문 출처

제약산업 용어집(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역어

대역어 약어

참고 사항

분야: R&D

가교시험

薬橋試験

정의문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실험들.

정의문 출처

제약산업 용어집(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역어

bridging study

대역어 약어

참고 사항

분야: R&D

3. 정비 과업 진행 절차

3.1. 용어 정비

3.1.1. 기구축 자료 검토, 정비 대상 용어 선정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앞서 기구축 자료를 검토하고 정비 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였다. 정비 항목은 표제어, 분야 분류, 원어, 정의문, 용례, 관련 용어, 대역어이므로 해당 항목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파악하고 정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하였다.

기본적으로 정비 대상 용어는 언중들의 언어생활의 바탕이 되거나 관여도가 높은 용어를 고르고, 사용 예시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초 정비 대상 원자료집 4종에서 책임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기구축 용어를 고르고 이 어휘들의 미시 구조의 구축 상황을 살펴 이번 과업의 목표 달성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비 대상 어휘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때 영어 등의 외래어로만 구성된 어휘나 의미 파악이 어려운 약어 등과 같이 표제어 단계에서 제외한 것과 정의문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용어를 포함하여 770개는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정비 과정에서 두 개 이상의 정의문을 포함하고 있거나 표제어 분리가 필요한 용어를 확인하고 신규 구축을 통해 정비 대상 용어를 확보하여 4개 자료집에서 총 11,651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1차 정비 완료 후 목표치에 모자란 용어 수를 보완하기 위해 용어집 1종을 추가하고 2,789개 용어를 선정하여 최종 14,440개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정비 지침은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하여 제공하였다. 제공받은 정비 지침을 국립국어원의 요청에 따라 연구진에서 검토하여 논의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논의할 것을 정리하여 국립국어원에 전달하였다. 이후 연구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정비 지침을 수정하였고, 그 결과물을 보내온 것으로 정비 작업을 하였다.

3.1.2. 정비 지침 보완

정비 작업의 기준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지침과 추가 논의 후 확정된 세부 지침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업을 해 나가되, 논의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연구진 내에서 협의를 통하여 처리 방향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결정한 처리 방향이 주관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국어원과 논의를 거쳐 주관 기관과 해당 사항을 공유하며 일체화를 이룬 상태에서 정비 작업을 하였다.

연구진에서는 월별 보고와 중간보고 등의 주기적인 보고회를 통하여 국립국어원과 정비 지침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지침과 관련하여 연구진과 국립국어원 사이에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5월 3일(금) 회의에서의 정비 지침 관련 논의 사항

① 지명, 부처명 등의 비식별화 기준의 확대 적용 가능성 관련

- 현행 지침은 부정적 문맥, 이해관계의 대립, 계약 및 허가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우려되는 바가 있기에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비식별화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함.

- 정부 부처의 처리는 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23쪽 하단의 인명 비식별화의 예시 ‘국토교통부(장관 000)’를 통해 보았을 때도 비식별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 등과 관련되는 경우 비식별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경우가 있음.

- ‘000 과장’과 같이 앞에 오는 것이 비식별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뒤에 오는 직위와 직책이 정보 노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듦.

⇒ 지역명이 노출되는 것은 해당 지역민들이 꺼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

중앙 행정 기관은 비식별화할 것까지는 없을 듯함.

정무적인 판단을 하여 확대 적용할 수도 있음.

② 영문자의 비식별화 시 사용하는 O의 개수 판단 여부: “훗날 톱스타가 될 그는 LH미디어 대표 금라희와 계약 관계로 묶인다.”에서 ‘LH’ 부분은 000 O로 표시해야 할지 OO로 표시해야 할지가 불분명함.

⇒ LH는 OO로 표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비식별 대상의 글자수가 많은

경우 0 4개(0000)로 표시함.

③ 정의문 내 숫자 표기의 한글 표기 수정 여부

- 정의문에 숫자가 입력된 경우 ‘2개’를 ‘두 개’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그러나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을 명시한 지침이 없으므로 작업 시 수정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실제로 정비 지침 18쪽의 시스템상의 작업 예시 이미지에서도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서’와 같이 숫자가 노출되어 있음.

- 예시에 비해 정의문의 경우 독법을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함.

※ 《우리말샘》에서는 ‘두 명’~‘2명’, ‘일 회’~‘1회’ 등이 혼재되어 쓰임.

※ ‘2명’의 경우 ‘두 명’인지 ‘이 명’인지 독법이 분명하지는 않아 ‘2’를 유지하는 게 좋아 보이지만 ‘2 사람’의 경우 ‘두 사람’이 명확하므로 바꾸어 제시하는 게 필요해 보임.

⇒ 관습에 따르는 것이 좋겠음. 독음을 고려하여 확실히 이상해 보이는 ‘2 사람’류에 해당하는 것들만 ‘두 사람’과 같이 수정하면 되겠음.

④ 괄호에 병기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의 조사의 어형 선택의 문제: “격자 형식의 밝기값(digital number)을 통해서 지리 정보의 위치 성분을 표현하는 기법.”의 정의문에서 병기된 내용 뒤의 조사는 ‘밝기값(digital number)’을’로 해야 할지 ‘밝기값(digital number)를’로 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게 좋겠음.

⇒ 괄호 앞 어휘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 형태를 표기함.

⑤ ‘아밀라아제’와 ‘아밀레이스’처럼 표기(형태) 변경 전 용어와 변경 후 용어 중 각 용어의 원어가 다른 경우, 각각의 용어를 별도의 대상 용어로 작성한다고 할 때 새로이 작성하는 용어의 출처 표기를 원자료집으로 할지 정리가 필요함.

⇒ 원자료에 있는 대로 해야 함. 그러니 원자료집에 ‘아밀라아제’가 올라 있다면 이것을 ‘아밀레이스’로 수정하여 집필하지 않음.

‘아밀라아제’로 집필하고 『우리말샘』에 등록된 ‘아밀라아제’를 일치어로 넣어 줌. 그러면 『우리말샘』에 동의어로 처리가 되어 있는 ‘아밀레이스’와 ‘아밀라아제’가 연결되게 될 수 있을 것임.

⑥ 누리집명, 법령명, 책 제목의 기관명 등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면 원칙대로 띄어 쓰기로 하였는데 고유 명사 판단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우리말샘에서는 ‘과학 기술 정

보 통신부'로 띄어 씀.

⇒ 부처명, 기관명은 붙여 쓰도록 함.

집필 시 한 용어 내의 정의문, 사용 예시에 쓰인 대상 용어 형태는 일관성 있게 띄어쓰기를 하면 좋겠음.

붙여 쓴 것이 규범에 어긋나지 않으면 붙여 쓴 형태를 인정함.

예시문 안에 있는 것들은 띄어쓰기를 손을 보기로 함.

<예시>

보도자료	기관명 보도자료, 날짜, 제목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 1. 29., 과기정통부, 「2020년 방송콘텐츠 제
누리집	누리집명, 대항목>항목	누리집 ▼	국민재난안전포털 (재난현황) 예방 요령
금융 약관	기관명 또는 회사명, 자료명, 쪽수	약관 ▼	DB손해보험, 창출은행복다불몰러스종합보험 2104, 00쪽
전시 해설서	기관명, 제목, 쪽수	전시해설서 ▼	국립한글박물관, 친구들이 잘 있었니?, 0쪽
기사	신문명 또는 방송시명, 날짜, 제목	기사 ▼	연합뉴스, 2020. 8. 7., 전남도 '태풍 대비 시설, 농작물 피해 예상보다 적어'
법령	법령명(법령 번호) 조항 번호	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85호) 제2조제1항
	판례명(번호) 항목명 번호	법령 ▼	간혹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재판원 2020두43722) [판시사항] 11
기타(기관 간행물)	기관명, 발행 연도, 책 제목, 쪽수	기타 ▼	교육부, 2019 교육정보화백서, 12쪽
기타(논문)	기관명 또는 저자명, 발행 연도, '논문 제목', 책 제목, 출판시명 또는 발행 기관명, 인용 면수	기타 ▼	남종현, 1999, '어문연구의 국어학', 어문연구 27-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80쪽
기타(특허)	등록 특허명(등록 특허 번호), 쪽수	기타 ▼	나노 크기의 감지 센서(등록특허 10-0808421), 5쪽

3.1.3. 용어 배분

2.1.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어휘 14,440개를 「용어 구축 시스템」(<https://koreanterms.korean.go.kr>)에서 보조 연구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정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용어 배분 시에는 용어집별로 과제를 개설하고 '집필 및 검토' 분과에서 용어를 배분하여 연구원들이 비슷한 성격의 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도록 하여 일관성을 기하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들은 참여율에 따라 용어를 배정하였으므로 복수의 분과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다.

본 연구진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용 예시 확보를 우선하여 작업하였다.

그렇기에 사용 예시 확보의 수월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보조 연구원에게는 일정량의 용어를 작업 기간별로 배분한 후 집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용어를 배분하였다. <표 4>는 보조 연구원의 참여율을 반영한 집필 완료 목표 개수이다.

<표 4> 보조 연구원 참여율별 집필 완료 목표 개수

목표 개수	보조 연구원	비고
1,000	고상미, 김다솔, 전철한, 이유미, 하현정	
700	최옥정	행정 및 시스템 운영 보조
600	미즈카이유카리, 진주, 고예린, 안진	
300	강영란, 박찬우, 김보미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담당

<표 4>를 바탕으로 보조 연구원들이 「용어 구축 시스템」에 적응하고 정비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2024_분야별용어정비_공간정보용어사전 (국토지리정보원)』 과제에서 연구원별로 120개 ~ 170개의 용어를 1차 배분하였다. 전체 보조 연구원이 시스템에 가입하면 작업 분과에 분과원으로 등록하였다. 보조 연구원은 각 과제별 ‘집필 및 검토’ 분과에서 집필자로 등록하여 용어 집필을 진행하였다.

분과원 관리

과제: 2024_분야별용어정비_공간정보용어사전(국토지리정보원) ▼

분과: 집필 및 검토 ▼

총 30건 분과원 추가

번호	이름	계정	역할	등록 날짜	삭제
10	임태운		1단계 검토자	2024. 4. 1.	삭제
9	전철한		집필자	2024. 4. 1.	삭제
8	조경순		1단계 검토자	2024. 4. 1.	삭제
7	조재형		1단계 검토자	2024. 4. 1.	삭제
6	진주		집필자	2024. 4. 1.	삭제
5	최옥정		집필자	2024. 4. 1.	삭제
4	최윤		1단계 검토자	2024. 4. 1.	삭제
3	최준		1단계 검토자	2024. 4. 1.	삭제
2	최지영		1단계 검토자	2024. 4. 1.	삭제
1	하현정		집필자	2024. 4. 1.	삭제

<그림 1>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분과원 등록하여 역할 설정하기

분과에 등록한 분과원은 자신이 등록된 분과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므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활성화된 분과에서 용어 정비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림 2>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집필자 활동 분과 확인하기

분야분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	☐ 선택	☐ 선택
	정부 기능 분류 체계 (BRM)	☐ 선택	☐ 선택
	우리말샘 전문 분야	☐ 선택	☐ 선택
*용어 	가구점	중복 확인	용어 정보 가져오기 ☐ 북한어
	검색용 이형태 검색용 이형태가 여러 개일 경우 콤마(,)로 구분		
*원어 	☐ 고유어 ☒ 원어 입력 (언어명 입력) ☐ 원어 정보 없음 한자 街區點 + - ↕ 🗨️		
*어종 	☐ 고유어 ☒ 한자어 ☐ 외래어 ☐ 혼종어 ☐ 어종 없음 한국어 출바꿈 정의문 특수 문자 입력기 출처 특수 문자 입력기 + - ↕		
*정의문 	가구가 형성하는 다각형의 정점을 말한다. <image>공간정보_가구점.png</image> 출처 기타 공간 정보 용어 사전(국토지리정보원)		
사용 예시 	예시 찾기 출바꿈 진하게 예시 특수 문자 입력기 출처 특수 문자 입력기 + - ↕		

<그림 3> 「용어 구축 시스템」 집필자 작업창

<그림 3>에서 ‘*’로 표시된 필수 항목 작업창에 입력된 값이 없으면 [집필 완료]가 불가하며 이때는 누락된 필수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 달라는 확인창이 뜬다. 필수 항목으로 설정된 [사용 예시]는 집필 단계에서 최대한 수집이 필요한 항목이며 용어의 정의와 용어 사용 분야가 적절한 사용 예시를 찾는 작업을 하였다.

전문어의 경우 관련 기구축 말뭉치나 빅카인즈 구축 자료에서 사용 예시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포털 사이트 뉴스 검색과 부처 발간 자료(각종 자료집, 보도 자료, 공문 등), 관련 분야 논문 자료, 전문어 사전 등을 활용하여 사용 예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앞서 언급한 ‘PDF-Xchange Viewer’ 등을 이용하여 검색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집필이 완료된 용어는 공동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형태로 검토 및 보완 작업을 하였다. 이때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은 가능한 짝을 지어 주어, 유기적으로 집필과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1.4. 용어 집필

용어 집필은 집필 지침에 따라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배정받은 항목을 순차적으로 채워 나가고 정확성과 적절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가며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main>)을 비롯하여 각 분야를 대표하는 용어 사전 등을 충실히 검토하면서 이 과업의 취지에 걸맞은 용어 집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용어 집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작업 순서: 표제어, 원어, 정의문, 전문 분야 분류, 사용 예시, 관련 용어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 표제어: 기본적으로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한다.
- 원어: 누락된 정보를 찾아 보충하고 기입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한다.
- 정의문
 - ① 단어 또는 구로 제시되어 있는 정의를 문장 정의로 수정 및 보완한다.
 - ② 정의문은 언어적인 정의를 나타내는 것에 방점을 찍고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하도록 하되, 부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어적 정의를 먼저 제시한 후에 부가 정보를 제시한다.
- 분야: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하고, 관련 용어 및 계열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분류한다.
- 사용 예시: 용어의 의미와 사용 분야에 걸맞은 문장 단위 예시를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하여 보도 자료, 누리집, 법령, 신문, 잡지, 보고서, 논문, 특허 자료 등에서 뽑아 제시하고 반드시 출처를 표시한다.
- 관련 용어: 용어의 형태, 의미, 전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구축된 자료에 제시된 용어들 사이의 관계를 충실히 표시한다.

집필 시 용어의 표기, 원어 정보 입력, 정의문 제시, 분야 정보 판단 등에 관하여 연구진이 정비한 사례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용어 정비

용어집명	정비 전	정비 결과		정비 내용
		용어	검색용 이형태	
『공간정보용어사전』	가구확정측량	가구^확정^측량		띄어쓰기
『공간정보용어사전』	아이티알에프2000	아이티알에프^이천	ITRF 2000	숫자의 한글 표기, 검색용 이형태 입력
『원자력용어집』	HEPA^필터	헤파^필터	HEPA 필터, 헤파(HEPA) 필터	외국 문자의 한글 표기, 띄어쓰기, 검색용 이형태 입력
『원자력용어집』	싱크로사이클로트론(FM^사이클로트론, 주파수 변동식^사이클로트론)[가속기의^일종]	싱크로사이클로트론		표제어에서 괄호 안부가 정보 삭제

2) 원어 정보 입력

용어집명	용어	정비 전	정비 결과
『석탄용어사전』	에이엔에프오	(없음)	<영어>ANFO(Ammonium Nitrate Fuel Oil)
『석탄용어사전』	게르마늄	(없음)	<독일어>Germanium
『원자력용어집』	원형^원자로	(없음)	<한자>原型原子爐
『원자력용어집』	가로세로비	(없음)	<고유어>가로세로<한자>比
『원자력용어사전』	아보가드로수	(없음)	<안 발힘>Avogadro<한자>數
『항로표지용어사전』	부채꼴^빔	(없음)	<고유어>부채꼴<영어>beam

3) 정의문 정비

용어집명	용어	정비 전	정비 결과
『공간정보용어사전』	가상 [^] 기지국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NSS 위성수신방식과 위성기준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임의의 지점에서 단말기 또는 휴대폰으로 그 지점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가상의 기지국이다. 정밀 실시간 위치결정을 위해 위성기준점으로 구성된 망에서 오차를 모델링하여 망내에 세워진 수신기 근처에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기준이다. 위성기준점으로 이루어진 기준국망을 이용해 내부 임의의 위치에서 관측된 것과 같은 가상기지국을 생성하고 이 가상기지국과 이동국과의 RTK 측량을 통하여 정밀한 이동국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어서 위치결정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 이용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엔에스에스(GNSS) 위성 수신방식과 위성 기준점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합하여 임의의 지점에서 단말기 또는 휴대폰으로 그 지점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가상의 기지국.
『원자력용어집』	마멸	①지질분야에서는 파쇄물이 물이나 바람으로 운반되는 사이에 서로 충돌하여 더욱 작아지며 표면이 평평해지는 현상 ②금속 재료분야에서는 금속표면에 대한 마찰 또는 마모의 원인이 되는 마멸을 말한다.	지질 분야에서 파쇄물이 물이나 바람으로 운반되는 사이에 서로 충돌하여 더욱 작아지며 표면이 평평해지는 현상. 금속 재료 분야에서 금속 표면에서 일어나는 마찰 또는 마모.
『원자력용어집』	화학 [^] 및 [^] 체적 [^] 제어 [^] 계통	가압수형 원자로에서는 제어봉의 구동 이외에 1차 냉각재 속의 붕산 농도를 바꿈으로써 중성자 반응도를 제어하는데 이 제어계를 말한다. 체적 제어탱크(volume control tank)는 직접 노심 냉각수와 접촉되어 있고 또 1차 냉각재의 보유량을 조정하는 작용을한다. 여	가압수형 원자로에서 제어봉의 구동 이외에 1차 냉각재 속의 붕산 농도를 바꿈으로써 중성자 반응도를 제어하는 제어계. 체적 제어탱크(volume control tank)는 직접 노심 냉

		기서 붕산용액 또는 순수를 이 탱크에 주입함으로써 1차 냉각수 속의 붕산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10}\text{B}(\text{n},\alpha)^7\text{Li}$ 반응으로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큰 ^{10}B이 중성자 흡수단면적이 작은 ^7Li로 변하는 것을 이용하여 연료장전시에는 약 2,000ppm으로 연소도의 증가와 함께 농도를 감소시키고 연료교환 시기에 임박해서는 수백ppm으로 붕산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원자로의 반응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제어봉에 의한 제어와 비교하면 노심 내의 위치에 따른 반응도의 상위를 평균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제어가 쉬워진다. 그 밖에 로 냉각재의 pH, 용존산소량, 불순물 등을 조절하여 부식을 막게 할 뿐만 아니라, 방사성물질을 정화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각수와 접촉되어 있고 또 1차 냉각재의 보유량을 조정하는 작용을 한다.
--	--	--	--

4) 분야 분류

용어집명	용어	분야 분류 정비 결과
『공간정보용어사전』	가상 [^] 기준점	<대분류>정보/통신 <중분류>위성/전파
『공간정보용어사전』	최다 [^] 수위	<대분류>환경 <중분류>해양환경
『원자력용어집』	화학적 [^] 연력	<대분류>원자력 <중분류>방사선 기술
『원자력용어집』	비소	<대분류>화학 <중분류>무기화학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	가돌리나이트	<대분류>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중분류>지질과학

5) 사용 예시

용어집명	용어	사용 예시 정비 결과
『공간정보용어사전』	감법^혼색	감법 혼색일 때 녹색을 얻을 수 있는데 이때 노랑과 파랑이 필름이거나 투명한 잉크일 때 가능하다. 《기사 동아일보, 2003. 3. 4., 해맑은 자주 녹색 띠 파랑 노랑이》
『원자력용어집』	화학^선량계	이러한 화학 선량계와 화학 센서와의 차이점은 첫 번째로 화학 선량계는 반드시 목표로 하는 금속 이온 등과 정량적으로 반응해야 하지만, 화학 센서는 꼭 정량적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기타 티오나프탈이미드계 유도체 및 이를 이용한 다중 신호화 수는 선택적 프루브(등록특허 10-1389738), 5쪽》

이번 과업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용 예시 확보를 최대로 하고자 하였다. 용어의 이해에서 사용 예시는 중요도가 높아서이다. 이에 연구진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다각도로 실시하여 정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 자료, 보고서, 계획서 등의 공개 자료, 연구 논문, 전문 자료, 특허 문서, 기사, 법령 등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용 예시를 추출하였다. 사용 예시의 출처는 모두 공신력 있는 자료에 국한하였으며,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유일례에 해당하더라도 배제하였다.

가장 먼저, 연구진에서는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보도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도 자료에서 사용 예시를 찾아서 정비 결과물에 반영하였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3. 6. 6., 전국 단위 첫 지적 측량 경진 대회 열린다
- 외교부 보도자료, 2015. 4. 22., 한미 원자력 협정 전면 개정-「과거를 벗고 현재를 풀며 미래를 열다」-

- 청양군 보도자료, 2018. 4. 9., 000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임시 경계점 표지 설치

이어서 연구진에서는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정부 등의 공공 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기관의 누리집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누리집에서 사용 예시를 찾아 정비 결과물에 반영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 분야별 정보>주택·토지>측량업 등록 민원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지 및 정보 마당>공지 사항
- 국립해양조사원, 기관 소개>업무 소개>해양 관측

이어서 연구진에서는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법령에서의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법률, 시행령, 장관령 등의 법령에는 용어의 정의가나 사용 예시가 포함된 경우가 많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령을 사용 예시 확보에 주요하게 참고하였다.

- 계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616호) 제6조제1항제14호
-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고시 제2015-1호) 제22조제1항제3호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50호) 제5조제1호
- 지적 측량 시행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98호) 제11조제1항제5호

다음으로 연구진에서는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 등에서 발간한 간행물에서의 용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 다음과 같은 간행물 등을 사용 예시를 확보하는 데에 주요하게 참고하였다.

- 건설교통부, 1997, 수치 지도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연구
- 과학기술처, 1997, 중수로 개량 국제 공동 연구 및 기반 기술 개발(중수로용 고연소도 핵연료 노심 해석 기술 개발)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초·중등 교원을 통한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성 향상 방안 연구
- 국토지리정보원, 2004, 세계 측지계 기술 지침서

사용 예시 중 상당수는 신문사, 방송사, 잡지사 등 언론사에서 생산한 여러 형태의 기사에서 확보하였다. 본 연구진에서 제시한 사용 예시 확보에 이용된 기사를 발간한 주요 언론사 중 ‘ㄱ’으로 시작하는 것만을 대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스신문, 가톨릭뉴스,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개미뉴스, 건강미디어, 경기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 경북신문, 경북일보, 경상매일신문, 경상일보, 경상투데이, 경인방송, 경인일보, 경주포커스, 경향신문, 골프산업신문, 공학저널, 광주드림, 교수신문, 국민뉴스, 국민일보, 국방일보, 국제뉴스, 국제신문, 굿모닝충청, 그린포스트코리아, 글로벌경제,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환경신문, 금강뉴스, 금강일보, 기계설비신문, 기계신문, 기호일보, 김포신문

이와 같은 방식으로 검색해도 찾기 어려운 사용 예시는 학술 서적이거나 학술 논문에서 확보하였다.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주요하게 참고한 연구 논문이 수록된 학회 목록 중 ‘ㄷ’으로 시작하는 것을 대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대한건축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대한금속재료학회, 대한기계학회, 대한물리학회, 대한방사선과학회, 대한방사선기술학회,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방사선치료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수의사회, 대한수학교육학회,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대한영상치의학회, 대한용접접합학회, 대한원격탐사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전기학회, 대한전기협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지구물리학회, 대한지리학회, 대한지질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대한철학회, 대한초음파의학회, 대한치과교정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핵의학기술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

화학학회, 대한화학회, 대한환경공학회, 디지털콘텐츠학회

일부 사용 예시는 학술 서적에서 확보하였다. 사용 예시 확보를 위하여 참고한 주요 전문 서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이철재 외, 2017, 항공기 구조 설계 실무, 좋은땅.
- 장세호, 2010, 박용 보일러와 증기 터빈, 도서출판 신화전산기획.
- 최동수 외, 2013, 건축 전기 설비 총론 1권, 북큐브.

이상과 같이 보도 자료, 누리집, 정부 간행물, 법령, 신문 및 방송 등의 기사, 학술 논문, 학술 서적 중 어느 한 곳에서 사용 예시가 검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용어 중에 특수성이 있는 것들은 잘 검색이 되지 않았다. 이런 용어 중에는 특허 출원 문서나 특허를 받은 문서 등에서는 쓰임이 관찰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이런 점에서 특허 관련 문서도 주요한 사용 예시 검색 대상이 되게 되었다. 이처럼 사용 예시를 제시하는 데에 활용된 특허 목록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가정용 연료 전지 시스템의 운전 개시 방법(등록특허 10-0830161)
- 간접 압출을 이용한 연구로용 핵 연료봉의 제조 방법(등록특허 10-0592557)
- 흡수 에너지 제어가 가능한 상변화 합금 제조 방법 및 그에 따라 제조된 합금(공개특허 10-2017-0006526)
- 흡착 응집용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공개특허 10-2020-0018105)
-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고속 유사도 측정 방법 및 장치(등록특허 10-1400928)

특허 관련 문서는 특수성을 띤 분야별 용어의 실제 쓰임을 확인하는 데에 주요한 원천이 되는 것들이었다. 많은 수의 용어가 특허 문서에서 그 쓰임이 확인되어 전문 분야에서의 쓰임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3.1.5. 연구진 내 용어 검토 및 보완

정비 작업은 공동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였다. 1차로 보조 연구원이 배분받은 원자료를 확인 후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지침을 참고하여 집필한 후 작업을 완료하면 관리자가 팀별 담당 공동 연구원에게 용어를 배분하여 검토하는 작업을 하였다.

공동 연구원의 검토는 내용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집필되어 채워졌는지, 전문 분야 분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용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등에 역점을 두어 이루어졌다. 즉 표제어, 원어, 정의문, 전문 분야, 사용 예시, 관련 용어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비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작업 순서에 부합하게 미시 구조에 들어갈 정보들이 착실히 제시되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고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검토 작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정비해 나가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정하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은 부분을 채워 넣어 정비 내용에 빈칸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들의 접점이 많아지도록 하여 용어를 분배한 후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럼으로써 집필과 검토가 호흡을 맞추어 원만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표 5> 분야별 용어 정비 연구원 담당 팀 구성

공동 연구원	보조 연구원
조재형(930)	최옥정(650), 고상미(280)
백승주(930)	고상미(670), 김다솔(260)
조경순(930)	김다솔(690), 오지수(240)
유하라(930)	오지수(710), 전철한(220)
최지영(930)	전철한(730), 이유미(200)

임태운(930)	이유미(750), 하현정(180)
최윤(930)	하현정(770), 미즈카이유카리(160)
공나형(930)	진주(540), 미즈카이유카리(390)
김경표(930)	고예린(550), 안진(370), 진주(10)
이수진(500)	강영란(250), 안진(180), 박찬우(70)
최준(450)	김보미(260), 박찬우(190)
이준환(680)	전체 보조 연구원(50)(*박찬우, 김보미(40))

각 과제별 [집필 및 검토] 분과에서 1차로 작업이 마무리된 것들은 [감수] 분과로 용어를 옮겨 2차 검토를 진행하였다. 감수는 전문가 검토와 공동 연구원의 사전적 감수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검토 작업을 한 후에 책임 연구원이 살펴보고 정확성과 적절성을 살피고 균형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또한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작업자들 사이의 편차가 생기지 않는지를 판단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정을 적절히 하였다.

3.1.6. 전문가의 검토, 연구진의 검토 결과 반영

연구진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 중 전문 분야별로 결과물을 추출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내용 검토를 요청하여, 용어 관련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히 제시되었는지 등을 검토를 받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내용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

검토 대상은 용어집의 성격을 고려하여 용어가 전문 분야에 응집되어 있고 검토를 맡길 정도의 용어 개수가 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용어사전』, 『석탄용어사전』, 『원자력용어집』, 『항로표지용어사전』,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가 검토 대상이 되었다. 각 용어집의 내용에서 용어의 대분야별로 외부 전문가에게 감수를 의뢰하였다.

<표 6> 외부 내용 전문가 검토 관련 정보

분야	전문가 정보	용어 개수	전문가명	소속 및 직급
물리학, 수학		1,797	박찬범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림수산물식품		384	구연종	전남대학교 농생명화학과의 교수
원자력, 에너지자원, 전기전자		2,227	김동희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건설교통		698	박제진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환경		496	박정훈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지구환경		681	성동훈	전남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화학, 화공		1,043	김인경	이화여자대학교 화학나노학과 교수
사회과학		1,057	김화환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총계		8,383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토를 요청한 바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였다.

- ① 분야 분류의 적절성: 용어의 정의문에 맞는 분야로 분류한 결과가 적절한지 검토 요청
- ② 원어 정보의 정확성: 용어에 대응하는 제시된 원어가 정확한지를 검토 요청
- ③ 정의문 기술의 정확성과 용이성: 정의문은 전문 분야의 의미 사용을 정확히 드러내면서 간결하고 고등학교 정도를 나온 사람이 보고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현재의 정의문이 이 방향에 맞게 작성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이상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 제시 요청
- ④ 사용 예시의 적절성: 용어의 의미와 용법에 걸맞게 쓰인 보기로서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용어가 사용되는 맥락과 어긋난 사용 예시가 제시된 것이 있다면 지적하고 사용 예시 대체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요청

외부 전문가 검토 작업은 각 용어집의 구축 내용을 엑셀로 내려받아 대
류 기준으로 나누고 엑셀에 해당되는 내용을 제시받는 형태로 이루어졌
이렇게 엑셀에서 검토 의견을 남기는 형태로 제시한 것들은 연구진
에서 공동 연구원이 적절히 반영하는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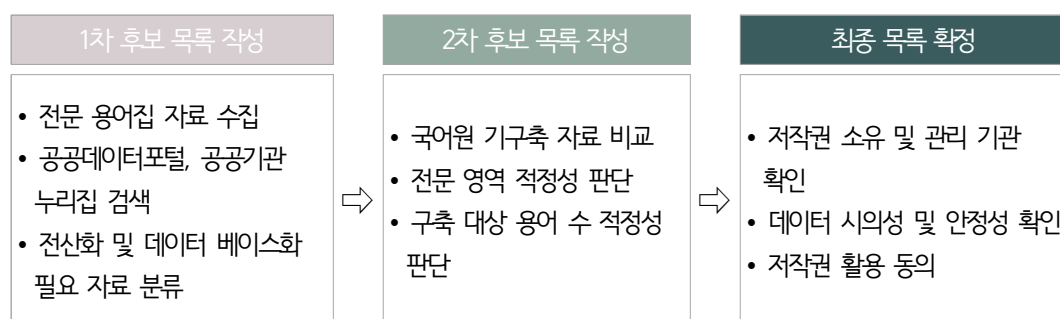
〈그림 4〉 원자력, 에너지자원 분야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

– 43 –

3.2.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3.2.1.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 선정

전문 용어집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는 지금까지 용어 정비 사업의 대상 자료로 포함되지 않은 전문 용어집 중 비구조화된 데이터나, 표제항의 정보 항목 배열의 일관성 등이 결여되어 정제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용어 구축 시스템」의 기본적인 표제항의 성격에 맞게 개별 정보 항목들을 배열하여 전산 데이터로 구축하는 작업이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은 아래의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그림 5>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목록 선정 단계

1차 후보 목록 작성 단계에서는 공공 데이터 포털 및 각종 공공 기관의 누리집 검색을 통해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한 자료를 분류하여 1차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2차 후보 목록 작성 단계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용어집 후보 목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용어 정비 및 구축 사업 범위에 포함된 자료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1차 후보 목록을 거르고 국립국어원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에 구축된 자료의 전문 영역을 고려하여 전문 영역 및 구축 대상 용어의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2차 후보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최종 목록 확

정 단계에서는 개별 전문 용어집의 저작권 소유 및 관리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 활용 동의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목록을 확정하였다. 아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로 최종 선정된 목록이다.

<표 7>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선정 자료 목록

	자료명	예상 용어 수	저작권 관리 기관
1	제약산업 용어집	1,0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2,018	환경부
3	환경시험검사용어집	268	국립환경과학원
4	유물용어해설	728	문화재청
5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 해설집	305	국립중앙도서관
6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620	해양수산부
	합계	4,950	

3.2.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작성

용어 정비의 기본적인 과업은 전산화되어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에 탑재된 표제어 및 하위 표제항을 지침에 따라 수정하고 용례와 같이 누락된 필요 정보를 보완하는 것이다. 한편 전산 데이터베이스화의 기본적인 과업은 지속적인 용어 정비 환경 조성을 위한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으로서, 원저작자가 구축한 전문 용어 정보를 구조화하여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의 표제항 정보 항목에 맞게 배분하는 것이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의 이러한 기본적인 과업 방향에 맞추어 대상 자료의 정보 항목과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의 표제항 정보 항목 대응과 관련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을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

다. 이와 더불어 국립국어원에서 정비를 요구한 ‘용어(표제어)’, ‘원어’, ‘일치어’ 등의 표제항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용어 정비 과업에서 활용한 ‘용어 정보 집필 및 정비 지침서’의 내용을 최대한 따르는 것으로 지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의문’의 경우 원저작자가 기술한 정의문의 내용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용어 구축 시스템」의 기본적인 형식적 일관성을 고려하여 정의문의 끝부분의 구두점(마침표)과 관련된 정비 작업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하였다.

아래는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가운데 정비 대상 표제항에 대한 지침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3. 정비 대상 정보 항목: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항목은 기본적으로 용어(표제어), 원어, 정의문 및 관련 용어(일치어)이며, 기타 추가적인 정보는 최대한 기존의 정보 항목에 맞게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용어: 용어 정비는 「국립국어원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서」의 ‘**2** 대상 용어’ 항목의 지침을 따른다.

2) 원어 및 어종: 원어 정비는 「국립국어원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서」의 ‘**3** 원어’ 항목의 지침을 따른다.

○ 각 대상 자료별 원어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원어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항목 가운데 대상 분야의 전문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제어 항목의 원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원어 정보를 기입한다.

- 이때, 원어 정보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표제어 항목은 원어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비워 둔다.

○ 원자료에 원어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원어 입력 작업은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수행한다.

3) 정의문: 각 대상 자료별 정의문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정의문 내에 포함된 가운데점, 말줄임표, 따옴표, 낫표 따위의 기호는 특수 문자 입력기를 사용하여 입력한다.

○ 단, 정의문 마지막에 마침표(.)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기입한다.

4) 일치어: 대상 용어와 형태 및 개념(원어, 의미)이 일치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일치어 정보를 입력한다.

-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의 변경에 따라 용어의 분야 일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의 나머지는 대상 자료별 표제항 특징을 고려하여 「용어 구축 시스템」의 표제항의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아래는 6종의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자료집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해설집’을 작업 지침을 사례로 제시한 것이다. 대상 자료별 표제항과 「용어 구축 시스템」의 표제항 대응 관계를 할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업 지침을 구성하였다.

이때, 표나 그림 등 멀티미디어 자료가 포함된 경우 원자료집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하였다. 대상 자료집의 표제항을 「용어 구축 시스템」의 표제항에 1:1로 할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고 사항’으로 일괄 할당하였다. 그리고 이후 수행될 용어 정비 과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분자와 배열 순서의 일관성과 관련된 지침 내용을 포함하였다.

5)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해설집

- 용어→용어
 - 소괄호 내 한자 및 영어→원어 및 대역어/대역어 약어
 - 정의문→정의문*
 - 정의문 하단 출처 및 참조→참고사항**
 - 용례→사용예시***
 - 표→멀티미디어(이미지)****
 - 자료집명(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해설집(국립중앙도서관))→정의문 출처
- * 정의문의 문단 구획(줄바꿈)은 반영하지 않고 공백을 구분자로 한 줄에 입력한다. 단,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 문단 구획을 한 부가정보의 경우, 각 글머리 기호를 시작으로 한 단위별로 문단 구획을 반영한다.

** 정의문 말단 소괄호 내 출처 정보가 있는 경우, 참고 사항에 ‘정의문 출처: 000’의 형식으로 기입한다.

(예) 정의문 출처: 두산백과

*** 사용예시의 문단 구획(줄바꿈)은 반영하지 않고 공백을 구분자로 한 줄에 입력한다. 단,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 문단 구획을 한 부가 정보의 경우, 각 글머리 기호를 시작으로 한 단위별로 문단 구획을 반영한다.

*** 원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례는 원자료 구축 당시에 작성한 예시로, 사용 예시 출처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해설집, 쪽수’ 형식으로 기입한다.

(예)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해설집, 12쪽.

**** 원자료의 정의문에 포함된 표는 멀티미디어(이미지)에 할당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표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별도로 관리한다.

- 엑셀 업로드 시, 이미지 파일 및 제목 형식: 자료집명_용어.png

(예)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해설집(국립중앙도서관)_개인문고.png

- 용어구축시스템 업로드 이후, 파일명을 용어번호로 수정하여 관리한다.

(예)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해설집(국립중앙도서관)_개인문고.png → 241901720.png

**** 이미지 캡처 시, 확장자는 png를 선택하고, 표 제목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여백을 최소화하여 캡처한다.

※ 정의문 마지막에 마침표(.)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침표를 기입한다.

※ 정의문에 원문자 등의 숫자로 구분하여, 다의 기술을 한 경우, 별도의 줄을 생성하여 독립된 표제어로 기술한다.

※ ‘참고사항’ 내에 하위 정보 항목의 유형 이름을 적고, 쌍점과 공백(:)을 구분자로 하여 내용을 입력한다.

- 참고사항에 둘 이상의 정보 항목 유형을 입력해야 하는 경우, 공백, 세로선, 공백(|)을 정보 항목 유형 간의 구분자로 사용한다.

- 참고사항의 개별 정보 항목 유형 내에 둘 이상의 항목을 입력하는 경우, 쉼표와 공백(,)을 항목 간의 구분자로 사용한다.

- 참고사항에서 제시하는 쌍점, 세로선, 쉼표, 공백 등 구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는 자판을 사용하여 입력한다.

- 참고사항에 둘 이상의 정보 항목 유형을 입력할 때, 정보 항목 유형의 배열은 ‘정의문 출처>참조’의 순서로 입력한다.

[입력 예시]

가반납(假返納)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의 각 자료실과 서고자료신청대에서 관내 대출한 자료를 정보광장의 자가반납기에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 용례 |

이용자들은 본관에서 관내 대출한 자료를 디지털도서관의 정보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반납기에서 직접 반납하는 가반납이 가능하다.

확장성 마크업 언어(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웹 문서를 구조화하는 범용적인 표준형식이자 데이터 교환을 목적으로 한 메타언어.

HTML의 데이터기술 한계를 극복하고 SGML의 복잡함을 단순화시킨 인터넷용으로 최적화 한 페이지 기술언어를 말한다. XML의 표준화 작업은 웹컨소시엄(W3C)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출처: 문헌정보학용어사전 편찬위원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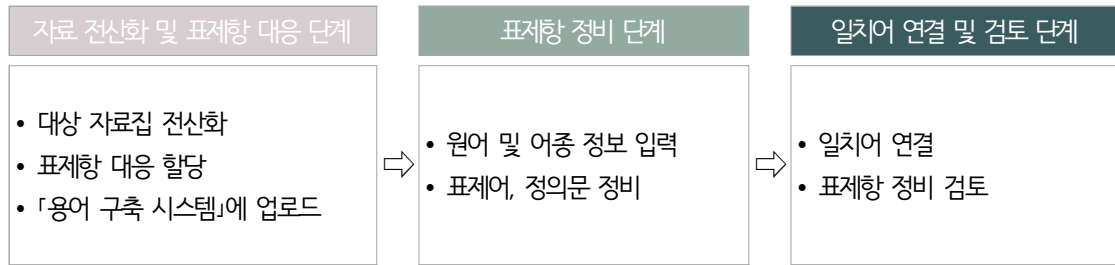
〈참조: 마크업 언어〉

→

용어	원어	정의문	정의문 출처	대역어	대역어 약어	사용 예시	사용 예시 출처	
가반납	假返納	국립중앙도서관 본관의 각 자료실과 서고자료신청대에서 관내 대출한 자료를 정보광장의 자가반납기에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해설집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은 본관에서 관내 대출한 자료를 디지털도서관의 정보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자가반납기에서 직접 반납하는 가반납이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해설집, 8쪽	
확장성 마크업 언어		웹 문서를 구조화하는 범용적인 표준형식이자 데이터 교환을 목적으로 한 메타언어. HTML의 데이터기술 한계를 극복하고 SGML의 복잡함을 단순화시킨 인터넷용으로 최적화 한 페이지 기술언어를 말한다. XML의 표준화 작업은 웹컨소시엄(W3C)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해설집 (국립중앙도서관)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			정의문 출처: 위키피디아, 『대한민국도서관』

3.2.3.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배분 및 수행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은 공동 연구원과 보조연구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단계는 자료 전산화 및 표제항 대응 단계, 표제항 정비 단계, 일치여 연결 및 검토 단계 등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6>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수행 단계

자료 전산화 및 표제항 대응 단계에서는 보조 연구원들이 대상 자료집의 특성에 따라 전산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용어 구축 시스템」의 표제항 성격에 맞는 대상 자료 표제항을 할당하였다.

엑셀 파일 형식에서 칼럼별로 구분하여 입력한 표제항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용어 구축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표제항 정비 단계는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수행되는데, 보조 연구원들이 작업 지침에 따라 표제어 형식과 정의문 형식의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원어와 어종 정보를 보충하였다.

최종 검토 단계에서는 보조 연구원들의 일치어 연결 작업과 공동 연구원의 표제항 정비 작업의 적정성 검토 작업을 수행하여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완료하였다. 각각의 연구원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수행 역할은 아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 8> 연구원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수행 내용

참여 유형	성명	역할
공동 연구원	최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자료 목록 선정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작성 표제항 정비 검토
	이수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배분 및 일정 관리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 관리 표제항 정비 검토
보조 연구원	강영란	대상 자료집 전산화

		표제항 대응 할당 일치여 연결 원어 및 어종 정보 입력
	박찬우	대상 자료집 전산화 표제항 대응 할당 일치여 연결 원어 및 어종 정보 입력
	김보미	대상 자료집 전산화 표제항 대응 할당 일치여 연결 원어 및 어종 정보 입력

4. 정비 과업 수행 결과

4.1. 용어 정비

4.1.1. 정비 완료 현황 및 통계

3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정비를 완료한 표 제어의 개수는 모두 10,103개이다. 기구축 용어별로 정비 완료를 한 항목의 개수는 <표 9>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9> 정비 완료 분야별 용어의 개수

용어집명 \ 용어 개수	원자료 용어(개)	정비 대상 용어(개)	검토 완료 용어(개)	예시 구축 용어(개)	예시 구축 비율(%)
『공간정보용어사전』	1,926	2,193	1,929	1,826	94.66
『석탄용어사전』	908	1,164	816	777	95.22
『원자력용어집』	5,040	5,690	3,914	3,588	91.67
『항로표지용어사전』	2,324	2,604	1,669	1,607	96.28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	6,721	2,789	1,775	1,756	98.93
계	16,919	14,440	10,103	9,554	94.56

실제로 집필을 시도한 용어는 앞의 <표 2>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12,225개였다. 기구축된 원자료 용어 개수 대비 정비 대상으로 배분한 용어의 비율은 『공간용어사전』이 113.86%, 『석탄용어사전』이 128.19%, 『원자력용어집』이 122.90%, 『항로표지용어사전』이 112.05%였다. 이는 각 용어집에 수록된 용어집에서 정의문이 1개 이상인 것들을 분리하여 추가 집필한 것을 포함한 결과이다.

해당 용어를 대상으로 정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 예시 확보가 어려운 용어가 다수 발견되었고 1차 집필을 마무리한 후에도 과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국립국어원과 논의를 거친 후 『환경및무역관

련용어정의정보』를 추가하여 등록된 용어 중 42.5%에 해당하는 2,789개를 분배하였고, 최종 작업 완료 용어는 10,103개로 집계되었다.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용어집』에서 가장 많은 개수의 용어가 정비되었고, 이어서 『공간정보용어사전』,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 『항로표지용어사전』, 『석탄용어사전』의 순으로 용어가 정비되었다.

이번 과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사용 예시의 구축이었다. 사용 예시는 언중들이 용어를 쉽게 이해하고 명확히 쓸 수 있도록 참고가 되는 정보이다. 정비가 완료된 용어 10,103개 중에서 사용 예시를 갖춘 경우는 9,554개로 94.56%에 해당하였다. 용어집별 검토 완료 용어의 개수가 많은 순서에 따라 사용 예시의 구축 비율을 살펴보면, 『원자력용어사전』에서는 91.67%가 사용 예시를 갖추었고, 『공간정보용어사전』에서는 94.66%,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에서는 98.93%, 『항로표지용어사전』에서는 96.28%, 『석탄용어사전』에서는 95.22%이었다.

사용 예시는 대부분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 공공 기관 등의 누리집에 실린 안내 글 또는 공개 자료, 정부 기관 등의 보도 자료, 정부에서 발한 각종 보고서 또는 백서, 특허 자료, 학술 논문이나 학술 서적에서 추출한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공적인 언어 사용을 충분히 대표하는 것들로서 사용 예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춘 것들이다.

정비가 된 용어 10,103개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의 대분류명을 기준으로 전문 분야별 용어의 개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용어집별로 상위 3위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하여 보면 가장 먼저 『원자력용어집』은 원자력>물리학>화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공간정보용어사전』은 사회과학>정보통신>지구과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는 환경>화학>사회과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항로표지용어사전』은 건설교통>전기전자>정보통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석탄용어사전』은 지구과학>에너지자원>기계의 순으로 분야 분포를 보였다. 10,103개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물

리학>원자력>사회과학의 순으로 용어의 분야 분포가 나타났다.

<표 10> 정비 완료 용어의 국가 과학 기술 표준 분류 체계에 따른 분류 결과

용어집 분야 분류 (대분류)	공간정보	석탄	원자력	항로표지	환경및무역	계
수학	120	4	12	11	3	150
물리학	128	20	1,251	202	107	1,708
화학	1	78	497	24	326	926
지구과학	129	258	109	96	101	693
생명과학	2	3	65	6	97	173
농림수산식품	4	1	5	2	64	76
보건의료	1	9	76	10	43	139
기계	47	88	143	224	80	582
재료	1	19	78	58	22	178
화공	2	52	33	11	18	116
전기전자	61	3	164	320	28	576
정보통신	388	0	19	244	12	663
에너지자원	2	184	20	34	78	318
원자력	0	2	1,341	0	24	1,367
환경	6	10	30	2	473	521
건설교통	126	25	27	378	94	650
인문학	6	1	1	1	1	10
사회과학	820	49	41	30	191	1,131
문화예술체육학	82	0	0	12	6	100
뇌과학	0	0	0	1	1	2
인지·감성과학	0	0	0	0	0	0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1	10	2	2	5	20
기타	2	1	0	1	1	5
계	1,929	816	3,914	1,669	1,775	10,103

이와 같이 각 분과 내에서의 분야별 분포를 확인하여 보면 지구축 용어

집에 어떤 성격의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이는 각 용어집에 해당하는 학문 분야가 어떤 전문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4.1.2. 표제어 및 원어 정비

표제어 및 원어는 정비 지침에 따라 표기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였다. 정비의 주요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어는 정비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두 한글로 표기를 하고 규범 표기가 정해진 용어는 규범에 맞는 표기만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비규범 표기가 실제로 널리 쓰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규범 표기가 있다면 규범 표기로 제시하고 비규범 표기는 검색용 이형태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표제어가 구 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를 표시하여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음을 표시하였다.

표제어에 대응하는 원어 정보를 빠짐없이 제시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 입력 유형을 보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 표제어의 원어 처리

대상 용어	원어	어종
거칠기	-	고유어
밝기	-	고유어
우절장	<한자>隅切長	한자어
가구^확정^측량	<한자>街區確定測量	한자어
갈릴레오	<안 밝힘>Galileo	외래어
데이터베이스	<영어>database	외래어
글로나스	<영어>GLONA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외래어

베이더우	<중국어>Beidou[北斗]	외래어
겉보기^거리	<고유어>겉보기<한자>距離	혼종어
고속^푸리에^변환	<한자>高速<안 발힘>Fourier<한자>變換	혼종어
스파게티^자료	<이탈리아어>spaghetti<한자>資料	혼종어
겔화^선량	<독일어>Gel<한자>化線量	혼종어
아이피^주소	<영어>IP(Internet Protocol)<한자>住所	혼종어
화학^및^체적^제어^계통	<한자>化學<고유어>및<한자>滯積制御系統	혼종어

먼저 원어와 관련하여 대상 용어가 고유어로만 이루어진 경우는 정비 지침에 따라 ‘고유어’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대상 용어가 한자어인 경우에는 표제어는 어휘 구성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고 ‘^’으로 구성 요소의 경계를 표시하였으나 원어의 한자는 모두 붙여서 제시하였다. 원어가 일반 명사 중 인구어 등에서 온 것으로 로마자인 경우는 소문자로 쓰는 원칙에 따라 표시하였다. 그러나 원어가 고유 명사이거나 독일어인 경우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썼다. 중국어의 경우 한어병음방안(漢語拼音方案)에 따라 로마자로 표기하고, 한자가 있는 경우 그 뒤 ‘[]’ 안에 한국식 한자로 제시하였다.

표제어에 로마자 두문자어로 된 약어가 포함된 경우, 마침표 없이 대문자로 제시하고 소괄호 안에 본말을 기재하였다. 이때 본말(줄어들지 않은 본래의 용어) 중 약어(머리글자만 따는 등의 방법으로 간략하게 줄인 용어)에 해당하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썼다. ‘아이피^주소’가 이에 해당하는 예이다.

원어가 혼종어인 경우, 각각의 언어 종류를 선택하고, 언어별로 원어를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혼종어에 포함된 로마자로 표기된 인명, 지명 등의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고 ‘<안 발힘>’으로 처리하였다. 표제어와 원어 정보 처리는 이와 같은 지침과 처리 방향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그 결과를 공동 연구원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1) 표제어

(1) 실제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와 차이가 있는 경우

원자료 표제어	의미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	정비 결과
소득^에너지	수력, 태양열, 풍력, 조력과 같이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단어이며, 정의문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또는 신재생에너지가 맞습니다.	소득^에너지

표제어의 경우 대부분 원자료집에 실려 있는 것이므로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위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료집에 있는 ‘소득^에너지’란 표제어는 생소한 용어로서 ‘재생 에너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원자료집에 실려 있고 정의문과 사용 예시를 고려할 때,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사람들에게 소득을 안길 수 있는 것임을 드러낸 용어로 이해되므로 원래의 표제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표제어를 형태가 현격하게 다른 것으로 수정하는 것은 2024년 분야별 용어 정비 과업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기에 원자료집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과업의 취지에 부합하게 작업하였다.

2) 원어

(1) 원어 정보가 누락된 경우

용어	원어 정보	
	원자료의 내용	정비 결과
그래파이트	(없음)	<영어>graphite

게르마늄	(없음)	<독일어>Germanium
그리드^스페이스	(없음)	<영어>grid spacer
화학적^탈피복	(없음)	<한자>化學的脫被覆
글로벌^이행^점검	(없음)	<영어>global<한자>履行點檢
킬레이트^화합물	(없음)	<영어>chelate<한자>化合物
원소의^인공^변환	(없음)	<한자>元素<고유어>의<한자>人工變換
볼츠만^상수	(없음)	<안 발함>Boltzmann<한자>常數
에스엔비	(없음)	<영어>SN(Signal to Noise ratio)<한자>比

원자료집에는 원어 정보가 없는 용어가 다수 확인되어 이를 충실하게 보완하여 정비하였다. 원어가 고유 명사에 해당하여 기원적으로 어느 언어에서 유래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어의 어종을 <안 발함>으로 처리하였다. 이것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말샘』에 실린 외래어 정보를 활용하였으며,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한국어 어문 규범에서 외래어 표기법의 용례 찾기를 이용하여 검색으로써 얻은 결과를 활용하였다.

(2) 잘못된 원어 표기가 된 경우

용어	원어 정보	
	원자료의 내용	정비 결과
감열^소염제	<한자>感熱疏髻制	<한자>減熱消焰劑
개갱^계수	<한자>開坑計數	<한자>開坑係數
지자장	<한자>地磁氣場	<한자>地磁場

트래버스^측량	<한자>多角測量	<영어>traverse<한자>測量
---------	----------	--------------------

용어 표기와 원어 정보에 괴리가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바로 잡아 정비를 하였다. 위 예에서 ‘지자장’의 경우는 <한자>인 ‘地磁氣場’이 제시되어 있어서 표제어에는 없는 ‘氣’를 불필요하게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이 ‘氣’를 삭제하고 ‘地磁場’으로 정비하였다. ‘트래버스^측량’에서는 ‘트래버스’의 원어를 한자어 ‘多角’으로 제시하여 놓아 표제어 형태와의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 이것은 ‘트래버스^측량’이 다각선을 설정하여 측량하는 것과의 관련성을 드러내기 위한 정보 제시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음역어가 아닌 의역어가 제시되었던 상황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2024년 분야별 용어 정비에서는 원어 정보는 음운적인 대응에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이에 맞도록 ‘트래버스’에 영어 ‘traverse’를 제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정비하였다.

(3) 누락된 원어 정보 보충

표제어	원어 정보	
	원자료의 내용	정비 결과
수산화^구리	<기타어>水酸化-	<한자>水酸化<고유어>구리
수소^이온^농도^시험법	<기타어>水素-濃度試驗法	<한자>水素<영어>ion<한자>濃度試驗法
수소화^게르마늄	<기타어>水素化-	<한자>水素化<독일어>Germanium

정비 내용 중에는 원어의 언어명이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것이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단일 언어 즉, 한자어나 외래어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혼종어의 경우 ‘기타어’로 입력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수산화^구리’나 ‘수소화^게르마늄’의 경우가 이를 대표하는 것이었다. 고유어나 외래어가 원어 구성에 포함된 경우 원어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들을 지침에

맞도록 원어 정보를 보충하였다.

4.1.3. 전문 분야 분류

어떤 용어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 용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분야에서 걸쳐 쓰이는 용어가 많아 용어의 사용 분야를 특정하기 어렵고 어떤 용어가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이다. 이에 표제어의 형태만을 가지고서는 분야를 판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의미를 기준으로 전문 분야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지향하고 있는 처리 방향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과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미를 기준으로 전문 분야를 판정하였다. 덧붙여 『우리말샘』에 동일한 용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우리말샘』의 분야 분류를 참고하여 전문 분야를 판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정비 대상 어휘 모두를 대상으로 분야 분류를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분야 분류가 애매한 경우 정의문의 내용과 관련 용어 간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확인한 후 책임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들이 검토하여 수정 반영하였다.

(1) 대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표제어	분야 분류 정보	
	정비 결과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
단극^전귀	<대분류>원자력 <중분류>원자력 기반 기술	<대분류>에너지/자원 <중분류>전력시스템
품위도	<대분류>에너지/자원 <중분류>자원탐사/개발/활용	<대분류>원자력 <중분류>핵연료/원자력 소재
선광	<대분류>에너지/자원 <중분류>자원탐사/개발/활용	<대분류>원자력 <중분류>핵연료/원자력 소재

대분류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감수 의견을 살펴보면, ‘원자력’과 ‘에너지/자원’과 같이 두 분야가 교집합이 있는 영역이었다. 정의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중분류, 소분류까지 검토한 후 적절한 분야라고 판단한 분류 결과를 반영하였다. 대분류를 수정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중분류도 수정해야 하므로 대분류와 중분류 모두 수정 사항이 발생하였다.

(2) 중분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표제어	분야 분류 정보	
	정비 결과	외부 전문가 검토 의견
탄가	<대분류>에너지/자원 <중분류>기타 에너지/자원	<대분류>에너지/자원 <중분류>자원탐사/개발/활용
풍력^변환^장치	<대분류>에너지/자원 <중분류>기타 에너지/자원	<대분류>에너지/자원 <중분류>신재생에너지
액체^가솔린^가스	<대분류>에너지/자원 <중분류>기타 에너지/자원	<대분류>에너지/자원 <중분류>가스에너지
가스^집속	<대분류>전기/전자 <중분류>중전기기	<대분류>전기/전자 <중분류>전기전자부품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	<대분류>전기/전자 <중분류>전지	<대분류>전기/전자 <중분류>기타 전기/전자
석탄^가스화^복합^발전	<대분류>전기/전자 <중분류>기타 전기/전자	<대분류>전기/전자 <중분류>중전기기
압축실	<대분류>전기/전자 <중분류>전기전자부품	<대분류>전기/전자 <중분류>영상/음향기기

대분류를 공유하되 중분류에 감수 의견이 있는 용어가 다수 발견되었다. 분류는 『2023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해설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였으며, 외부 전문가의 감수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 보완하였다.

4.1.4. 정의문 정비 및 보완

정의문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작업상의 기본 원칙은 기구축 자료의 정의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하되, 기구축 자료에 정의문이 없을 경우에 해당 용어가 『우리말샘』이나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경우라면 이곳의 정의문을 참고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침에 따르고 2장에서 제시한 정비 지침에 따라서 정의문 정비를 수행하였다.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이번 과업에서 원자료집에서 “1.~. 2.”, “①~. ②”, “(1)~. (2)”와 같이 정의가 된 것 또는 정의문 영역이 다른 것들을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의 예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표 12> “1.~. 2.”, “①~. ②”, “(1)~. (2)”형식의 정의문의 분리 기술

표제어	원자료집의 정의 방식	정의문의 분리
색	1. 인지 색 ; 관측자가 같은 크기와 모양과 구조로 된 두 시야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인식의 양상으로 관측에 관련된 복사의 분광구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양상이다.	1. 관측자가 같은 크기와 모양과 구조로 된 두 시야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인식의 양상. 관측에 관련된 복사의 분광 구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양상이다.
	2. 심리물리학적 색 ; 관측자가 같은 크기와 모양과 구조로 된 두 시야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복사의 특성으로 관측에 관련된 복사의 분광구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다.	2. 관측자가 같은 크기와 모양과 구조로 된 두 시야 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각적인 복사의 특성. 관측에 관련된 복사의 분광 구성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특성이다.
감쇠	① 방사선이 물질을 통과할 때에 물질과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에 의한 방사선량의 감소. 보통 기하학적 감쇠는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방사선이 물질을 통과할 때에 흡수 및 산란에 의해서 그 강도가 점차로 감소하는 것. 여기	1. 방사선이 물질을 통과할 때에 흡수 및 산란에 의해서 그 강도가 점차로 감소하는 것. 여기서는 선원으로부터 거리의 역제곱 법칙에 의한 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방사능의 강도가 붕괴에 의해

	서는 선원으로부터 거리의 역제곱법칙에 의한 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방사능의 강도가 붕괴에 의해서 시간과 함께 감소해 가는 것.	서 시간과 함께 감소해 가는 것.
격납^용기	(1) 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격납용기(reactor container, containment vessel)라고도 부르며 원자로와 냉각계통 등을 수용하는 건조물을 말한다. 보통 구형 또는 종형의 강철제로서 기밀·내압으로 되어 있으며 원자로 용기의 파손·원자로의 사고·1차 냉각계통의 파손 등 이상시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방사성 동위원소나 핵연료 등 방사성 물질을 넣는 용기. 보통 납으로 만들어진다. bird cage	1. 원자로와 냉각 계통 등을 수용하는 건조물. 보통 구형 또는 종형의 강철제로서 기밀·내압으로 되어 있으며 원자로 용기의 파손·원자로의 사고·일차 냉각계통의 파손 등 이상 시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방사성 동위 원소나 핵연료 등 방사성 물질을 넣는 용기. 보통 납으로 만들어진다.

본 연구진에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하여 보완해야 할 점을 청취하였다. 이번 정비에서 이루어진 전문가 검토 결과 원자료집의 정의문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정의문의 의미가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한 문제, 정의문이 다루고 있는 개념 범주 문제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외 용어의 단순 오타 및 철자 누락, 번역 어휘의 오류, 용어 사용의 오류, 띄어쓰기 오류 등이 확인되었다. 원자료집 내의 단순 오류 및 형식적인 오류는 연구진이 내부 논의를 통해 정비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다.

(1) 정의문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용어	정의문		
	검토 전 정비 내용	전문가 검토 내용	수정 정비 내용
분진^작업	작업장에 부유하는 <u>분진</u> 으로 건강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 일반	작업장에 부유하는 <u>분진</u> 에 <u>폭로되어</u> 건강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	작업장에 부유하는 <u>분진</u> 으로 <u>인해</u> 건강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

	적으로 고체를 분쇄, 연마, 절삭하는 작업 공정이나 토석, 암석, 광물을 하역하는 등의 작업 중에 분진이 부유하게 된다.	는 작업. 일반적으로 고체를 분쇄, 연마, 절삭하는 작업 공정이나 토석, 암석, 광물을 하역하는 등의 작업 중에 분진이 부유하게 된다.	업. 일반적으로 고체를 분쇄, 연마, 절삭하는 작업 공정이나 토석, 암석, 광물을 하역하는 등의 작업 중에 분진이 부유하게 된다.
페블베드성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접하는 <u>소구로 된 안치상</u> 을 형성하고 있는 원자로.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접하는 <u>구형 연료로 이루어진 밀집 배열 구조</u> 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로.	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접하는 구형 연료로 이루어진 밀집 배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원자로.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 중에는 정의문에 사용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수정을 제안한 내용이 있었다. ‘분진^작업’의 경우 내용 이해가 쉽게 되도록 술어를 갖추어 풀어서 표현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외부 전문가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이면서도 연구진 내에서 정비한 내용을 살리는 형태로 수정하여 “분진으로 인해”와 같이 정비를 하였다.

‘페블베드성’의 경우 ‘소구로 된 안치상’이라는 표현이 과도한 번역어로 사용된 듯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정비를 하게 되었다. 다만 ‘페블베드성’이 ‘원자로’를 유 개념으로 하여 정의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되는 바가 있었으나 외부 전문가도 이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하지 않았기에 원자료집에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린 것을 존중하여 더 이상 수정하는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

(2) 정의문의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용어	정의문		
	검토 전 정비 내용	전문가 검토 내용	수정 정비 내용
가스홀	무연 휘발유(90%)와 절대 에탄올(10%)를 혼합시키는 방식으로 제조한 자동차 연료. 무연	정의문에 90% 10%비율로 혼합비율이 적혀있지만 80% 20%도 가능한 에탄올 비율이 한정	무연 휘발유와 절대 에탄올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자동차 연료. 혼합 비율은

	휘발유용 자동차에 사용이 가능하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90~80% 대 10~20% 정도이며, 무연 휘발유용 자동차에 사용이 가능하다.
전기^에너지의^변압	기본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u>전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u>	기본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u>전압의 크기를 변화하는 것.</u>	기본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 중 정의문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되, 수정이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 원자료집의 정의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대로 두었다.

‘가스홀’은 혼합 비율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원자료집의 정의문의 취지를 손상하는 것은 아니고 정보의 정확성 및 적절성을 갖추는 면에서 적합한 것이기에 반영하여 정비 하였다.

‘전기^에너지의^변압’에 정의된 내용은 전기 에너지를 변환하는 것이었으나 외부 전문가의 검토에서는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차이가 있었다. 타당한 지적이나 전압의 크기를 변화시키면 전기 에너지의 크기도 달라지게 되므로 현재의 정의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고, 표제어의 구성 요소인 ‘전기 에너지’가 등장하는 현재의 정의가 용어 이해가 도움을 주는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애초의 정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정의문에 불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용어	정의문		
	검토 전 정비 내용	전문가 검토 내용	수정 정비 내용
개체군^동태	<u>개체군에 있어서 개체군 밀도는 포용력 수준을 상하로 변동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u> 물리적 환경 변화 또는 개체군 내부에서의 상호	물리적 환경 변화 또는 개체군 내부에서의 상호 작용 또는 밀접한 개체군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개체군 밀도의 변동	물리적 환경 변화 또는 개체군 내부에서의 상호 작용 또는 밀접한 개체군 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 개체군에 있어서 개체군 밀도는 포용

	작용 또는 밀접한 개체 군 간의 상호 작용의 결 과로 일어나는 현상.	이 일어나는 현상.	력 수준을 상하로 변동시 키는 경향을 갖고 있다.
--	--	------------	--------------------------------

‘개체군^동태’의 경우 ‘개체군에 있어서 개체군 밀도는 포용력 수준을 상하로 변동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라는 설명이 정의문에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이 있었다.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개체군’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기에 지적을 받은 내용을 제외해도 의미 파악에는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현재와 같이 정비를 하게 되었다.

4.1.5. 사용 예시 구축 및 보완

구축한 사용 예시는 국립국어원의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사용 예시에 인명, 회사명, 지역명 등 고유 명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정적인 맥락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 등 비식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O(영문 대문자)’로 바꾸어 익명 처리했다. 또한 사용 예시의 출처를 입력할 때는 출처 자료의 종류를 선택한 뒤, 기관명, 날짜(연월일), 자료명, 제목, 쪽수 등의 상세 정보를 썼다.

□ 사용 예시 및 출처 관련 정보의 정비 내용

-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논문 제목과 책 제목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표시함.
(기관명/저자명), 발행 연도, ‘논문 제목’, 책 제목, 출판사명/발행 기관명, 인용 면수
- 사용 예시가 문장인 경우 마침표 등의 문장 부호를 찍음.
- 사용 예시에 제시된 정비 대상 용어는 진하게 표시(볼드 처리)하며 용언의 경우는 어미를 포함하여 굵게 표시하고 체언의 경우는 조사를 제외한 용어 부분만 진하게 표시함.
- 사용 예시의 출처를 제시할 때 맨 끝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음.
- 사용 예시 출처에 누리집 주소는 제시하지 않도록 함.

- 사용 예시의 출처도 맞춤법에 따라서 표시함.
- 가운뎃점, 따옴표, 붙임표, 단위 기호 등은 시스템 내의 특수 문자 입력기를 열어 이곳에 제시된 기호를 선택하여 입력함.

이와 같은 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 연구원과 공동 연구원의 작업 단계에서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였다. 또한 종합 검토 작업을 하면서 다시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 예시는 언중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뉴스 > 보도 자료 > 누리집 > 법령’ 순서로 우선순위를 두었다. 하지만 용어가 전문 분야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것인 경우 뉴스 등에서 사용 예시를 찾기 어려웠으며, 전문 서적이거나 학술 논문, 특허 문서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었다.

4.1.6. 관련 용어 구축

관련 용어 구축은 정비 대상이 되는 표제어와 관련된 용어들을 제시하고 이것이 표제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이는 것이다. 관련 용어 구축 역시 정비 지침에 따라 대상 용어와 형태 및 개념(분야, 원어, 의미 등)이 일치하는 일치어,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동의어 등 용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어 등의 관련 용어를 연결하였다.

동의어를 판단하는 데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참고하였다. 상위어, 하위어, 계열어 등 대상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는 용어는 참고어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용어의 관련 용어 정보가 적절히 연결되어 있는지 검토를 받아 본 결과 관련 용어 정비 부분에서 눈에 띄는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4.1.7. 대역어 구축

대역어 원자료가 1개 이상인 경우 정비 지침에 따라 분리할 필요가 있었으며, 입력된 대역어에서 바로잡히지 않은 단순 오타가 있었다. 검토 단계에서 충분히 수정을 하였으나 미처 수정되지 못한 것은 감수 단계에서 바로잡았다.

(1) 누락된 대역어 추가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정비 내용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 결과
건전지	(대역어 없음)	<영어>dry cell
분산형^에너지^시스템	(대역어 없음)	<영어>Distributed Energy System(DES)

검토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역어의 누락을 전문가 검토 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정 반영하였다.

(2) 대역어 삭제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정비 내용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 결과
핵연료^교환기	<영어>fuelling machine (total absorption peak)	<영어>fuelling machine
경화	1. <영어>radiation 2. <영어>hardening	<영어>hardening

기구축된 용어의 대역어를 검토를 받은 결과 대역어가 적절치 않거나 불필요한 정보가 부기된 것이 있었다. 용어와 정의문 내용에 맞춰 검토

의견에 따라 해당 대역어와 부가 정보를 삭제하였다.

(3) 대역어 구성 요소 추가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작업 내용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 결과
비정	<영어>range	<영어>range <u>of ionizing particles</u>
운동^장치	<영어>interlock	<영어>interlock <u>device</u>
인가^핵물질	<영어>licensed material	<영어>licensed <u>nuclear</u> material

검토 의견으로 기구축 자료 및 정비한 대역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역어 구성 요소의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의문에 기반하여 의미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감수 의견을 반영하여 대역어를 수정하였다.

(4) 대역어 교체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작업 내용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 결과
핵융합	<영어>inertial confinement	<영어>nuclear fusion
반감층	<영어>half thickness	<영어>Half-Value Layer(HVL)
내부^피폭	<영어>internal irradiation	<영어>internal exposure
핵융합^실험^장치	<영어>heliotron	<영어>nuclear fusion experimental device
송전^선로	<기타어>distribution network	<영어>transmission network

검토 의견으로 기구축 자료 및 정비한 대역어의 대역어 교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해당하는 용어들은 용어와 정의문 내용을 확인하여

교체하였다.

(5) 대역어 철자 오류 수정

용어	관련 용어 및 대역어	
	작업 내용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 결과
알칼리 [^] 공급조	<영어>Successive Alinity Producing System(SAPS)	<영어>Successive Alkalinity-Producing Systems (SAPS)

검토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역어의 철자 오류를 전문가 검토 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정 반영하였다.

4.2.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4.2.1.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현황 및 통계

이전 장에서 기술한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한 표제어의 개수는 모두 5,112개로 당초 목표치인 5,000개를 충족하였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 전문 용어집 자료별 표제어의 개수는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13>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완료 자료별 용어의 개수

자료집명 \ 용어 개수	예상 개수	실제 정비 개수
『제약산업 용어집』	1,011	1,033
『수자원·물환경 실무 용어사전』	2,018	2,069
『환경시험검사용어집』	268	268
『유물용어해설』	728	780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 해설집』	305	309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	620	653
계	4,950	5,112

예상 용어 수에 비해 실제 정비 용어의 개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각 용어집의 색인 정보를 활용하여 예상 용어 수를 산정하는데, 실제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에서 단일 표제어 하위의 복수 정의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용어 자료를 분리 분석하면서 정비된 용어의 개수가 증가한 경우이다. 둘째, 형식적으로 단일 표제어의 정의 항목 내에서 정의를 위해 사용된 용어의 뜻풀이가 주석의 형태로 별도로 제시되어 있어 최초 예상 용어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의 이유로 예상 용어 수보다 실제 정비된 용어의 개수가 증가한 자료집은 6개의 대상 용어집 전체에 해당하며, 후자의 이유로 증가한 자료집은 예상 용어 수와 정비된 용어의 개수의 차이가 가장 큰 ‘유물용어해설’이다.

4.2.2. 표제어 정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의 대상 자료를 대상으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에 따라 「국립국어원 분야별 용어 정비 지침서」의 ‘[2] 대상 용어’ 항목의 지침 내용을 따라 정비하였다. 정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어는 정비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두 한글로 표기하고, 규범 표기가 정해진 용어는 규범에 맞는 표기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때 원자료의 표제어 표기 형태는 검색용 이형태 항목에 할당하였다. 또한 표제어가 구 이상의 성격을 지니는 것들은 구성 요소 사이에 ‘^’을 표시하여 기존의 사전 표기 규약을 최대한 따르도록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표제어 입력 유형을 보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4>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표제어 정비 예시

원자료 표제어(대상 용어)	정비 결과
등분산성/동질성	등분산성
	동질성
IND application	아이엔디^애플리케이션
제1 지류	제일^지류
5대권역	오대권역
파라페트월	패러핏^월
비임상시험관리기준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연구계획순응군분석	연구^계획^순응군^분석

표제어 정비 과정에서는 표제어 분리, 한글 표기 전환, 띄어쓰기 정비 등의 세 가지 유형의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먼저 원자료의 표제어가 둘 이상의 표제어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형태로 병기되어 있는 경우(예: 등분산성/동질성),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에서 필요한 표제어만큼 별도의 표제어로 분리하여 하위 표제항을 동일하게 할당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과정에서 로마자 및 숫자 등으로 표기된 원자료의 표제어(예: IND application, 제1 지류)를 지침에 따라 한글 표기로 전환하였다(예: 아이엔디^애플리케이션, 제일^지류). 셋째, 원자료에 수록된 구 단위 표제어의 경우 대체로 띄어쓰기 규범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구축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예: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연구계획순응군분석). 이를 전문 용어 관련 규범에 맞게 단어 경계에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하되 붙여쓰기를 허용한다는 표시에 해당하는 부호(^)를 부착하였다(예: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연구^계획^순응군^분석).

4.2.3. 원어 및 일치어 정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의 대상 자료를 대상으로 원어 및 일치어 정보는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에 따라 정비하였다. 정비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원어 정비의 경우,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이 되는 원자료에서 누락되어 있거나 잘못 기입되어 있는 원어 표제항을 대상으로 원어를 새롭게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였다. 이때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에서의 어종 정보 역시 원어의 내용을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표 15>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원어 정비 예시

대상 용어	원자료 원어	정비 결과	어종
가강수량	-	<한자>可降水量	한자어
스마트^정수장	-	<영어>smart<한자>淨水場	혼종어
오디에이	ODA	<영어>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외래어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이 되는 원자료의 원어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예: 가강수량, 스마트^정수장 등)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누락된 원어 정보를 새롭게 입력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어 정비 지침에 맞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예: 오디에이 등) 원어 정비 지침을 따라 내용을 수정하였다[예: ODA → <영어>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4.2.4. 기타 표제항의 정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이 되는 원자료의 정보들 중 용어 총괄 관리 시스템의 표제항 할당이 어려운 정보 항목의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참고 사항’ 표제항에 할당하였다.

<표 16>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기타 정보 정비 예시

대상 용어	참고 사항
가동보	출처: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고정보
하천^관리^유량	출처: 하천설계기준 연관어: 하천유지유량, 환경보존유량, 환경생태유량
시정^명령	분야: 인허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지침에는 개별 대상 자료집별 정보 내용에 따른 표제항의 할당 및 참고 사항 기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 사항에 주로 기입된 내용은 원자료에 기입되어 있는 ‘분야’, ‘출처’, ‘연관어’ 등의 표제항과 관련되는데, 원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제항 유형의 명칭을 최대한 유지하여, 참고 사항에 기입하였다.

이러한 정보들을 「용어 구축 시스템」의 관련 표제항에 할당하지 않은 것은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의 기본적인 방향이 원자료에 기입된 정보 항목의 오염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향후 용어 정비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 사항에 기입된 항목은 향후 용어 정비 과업에서 수행될 전문 분야 할당 및 관련 용어 제시 등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이 연구는 그간 여러 곳에서 구축하여 유통되어 온 분야별 용어 자료를 국립국어원의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보완하여 용어가 적절히 유통되도록 하여 용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언중들의 용어 사용의 편의성과 용어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다.

이번 과업의 첫 번째 목표는 『공간정보용어사전』, 『석탄용어사전』, 『원자력용어집』, 『항로표지용어사전』에 실린 12,225개 용어에서 정비 대상 용어를 고르고 표제어, 원어, 분야 분류, 정의문, 사용 예시, 관련 용어 정보를 갖춘 1만 개 이상의 용어를 정비하는 데에 있다. 두 번째 목표는 공공 데이터 포털 등에서 공개된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6종 이상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용어 구축 시스템」에 탑재하여 용어의 표기, 원어, 일치어 등 기본 정보를 정비하는 데에 있다.

12,225개 용어를 대상으로 한 용어 정비 작업은 국립국어원의 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이 지침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국립국어원과 논의하여 지침을 수정·보완하였고 이 지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모든 정비 작업은 국립국어원에서 구축한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수행하였다. 이 시스템에서 집필자로 보조 연구원들을 등록하고 참여율에 따라 용어를 배분하여 1차 정비 작업을 실시한 후, 집필이 완료된 용어는 공동 연구원에게 배정하여 검토와 보완 작업을 거쳤다. 검토가 완료된 용어 중 전문가가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외부 검토 위원에게 검토를 받고 검토 내용을 연구진 내에서 논의하여 적절히 정비 내용에 반영하고 책임 연구원이 최종 검토와 보완 작업을 실시하여 용어를 선정하였다.

이런 절차를 거쳐 과업을 수행한 결과 『공간정보용어사전』의 용어 중 1,929개, 『석탄용어사전』의 용어 중 816개, 『원자력용어집』의 용어 중 3,914개, 『항로표지용어사전』의 용어 중 1,669개를 정비하였는데, 사용 예시를 갖춘 용어를 더 이상 찾기가 어려워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

보』의 용어 중 1,775개 용어를 추가하여 정비함으로써 모두 10,103개 용어를 정비 완료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비된 용어 10,103개를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용어집별로 상위 3위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시하여 보면 『원자력용어집』은 원자력>물리학>화학의 순으로. 『공간정보용어사전』은 사회과학>정보통신>지구과학의 순으로.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는 환경>화학>사회과학의 순으로. 『항로표지용어사전』은 건설교통>전기전자>정보통신의 순으로, 『석탄용어사전』은 지구과학>에너지자원>기계의 순으로 분야 분포를 보였다. 10,103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물리학>원자력>사회과학의 순으로 용어의 분야 분포가 나타났다.

정비 완료된 것들 중에 사용 예시를 갖춘 경우는 9,554개로 94.56%에 해당하였다. 용어집별로는 『원자력용어사전』에서는 91.67%, 『공간정보용어사전』에서는 94.66%, 『환경및무역관련용어정의정보』에서는 98.93%, 『항로표지용어사전』에서는 96.28%, 『석탄용어사전』에서는 95.22%의 용어가 사용 예시를 갖추게 되었다. 이 중 일부 용어에 대하여는 복수의 사용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사용 예시는 대부분 보도 자료, 정부 발행 각종 보고서 또는 백서,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 특허 자료, 학술 논문이나 학술서적에서 찾은 것으로 모두 공적인 언어 사용을 보이는 데에서 예시를 취하였다.

전문 용어집을 대상으로 한 전산 데이터베이스화는 연구진에서 대상 후보 자료 목록을 선별한 후 국립국어원과의 협의 아래 후보를 결정하고 원자료 구축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이용 허가를 받았다. 그런 후에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지침을 작성하고 확정하여 이에 따라 「용어 구축 시스템」에서 표제어, 원어, 정의문, 관련어 정보 등을 갖추는 방식으로 과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약산업 용어집』에서 1,033개, 『수자원·물환경 실무용어사전』에서 2,069개, 『환경시험검사용어집』에서 268개, 『유물용어해설』에서 780개, 『국립중앙도서관 실무용어 해설집』에서 309개, 『국제해사기구(IMO) 전문용어집』에서 653개 등 모두 5,112개의 용어를 전산 데이터

베이스화하였다.

이번 연구로써 얻은 결과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이번 정비 사업의 결과로 한국어 언어 자원을 종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용어 정비 결과물은 「온용어」를 통해 공개되어 언중들의 용어 이해 수요에 부응하며 학문의 발전이나 인공 지능·자동 번역 등 언어 자원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데에 두루 활용할 수 있다.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결과물은 앞으로 용어 정비를 하는 데에 정비 대상 용어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정비 사업의 결과물은 일반 언중의 눈높이에 맞는 용어 정비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공공 언어, 사전학, 사회 언어학, 언어 교육학 등과 접점이 많다고 하겠다. 이런 면에서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하여 얻은 여러 내용을 학계에 발표하고 논의함으로써 용어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와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이번 과업을 통해서 정비하고 구축하는 정보는 『우리말샘』 등의 국어사전의 미등재어 보완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다. 국어사전의 전문 용어에는 아직 사용 예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 정비를 통해서 확보된 다량의 인용례는 이미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전문 용어의 실제 쓰임을 보이는 예문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의의가 있다. 이처럼 이번 정비 사업이 결과물은 국어사전의 보완 또는 구축에 활용되어 국어사전의 질적인 개선과 양적인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이번 과업을 통하여 수정 및 보완이 된 정보는 전문 용어의 표준화 및 개선 등을 비롯한 다른 공공 언어를 비롯한 언어 개선 사업에 참고 자료가 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으로 언어 개선을 하는 데에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전문 용어 표준화 또는 개선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 결과물이었으나 각 분야마다 기준이 같지는 않아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그렇기에 일관

된 기준을 가지고서 정비된 이번 과업의 결과물은 앞으로 전문 용어의 구축, 정비, 표준화를 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다섯째, 이번 과업은 공공 언어의 확립과 개선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용어를 정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국립국어원의 중요한 성과물이자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과업의 결과물은 당장은 용어에 관한 양질의 정보를 국어 화자들이 두루 참고하여 공공 용어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높이는 데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용어를 바탕으로 하여 공공 언어가 갖추어야 할 바를 어떻게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지를 보여 줄 수 있는 밑천을 얻게 된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기획·연구>

국립국어원 강미영 언어정보과장

국립국어원 이현주 학예연구사

국립국어원 김나영 연구원

<연구 참여자>

책임 연구원: 이준환(전남대)

공동 연구원: 이수진(전남대), 최준(전남대), 조재형(전남대), 백승주(전남대), 조경순(전남대),
유하라(성균관대), 임태운(남부대), 최지영(송실대), 김경표(전남대), 최운(강원대),
공나형(전남대)

보조 연구원: 최옥정(전남대), 고상미(전남대), 김다솔(전남대), 이유미(전남대), 오지수(전남대),
전철한(전남대), 하현정(전남대), 진주(전남대), 미즈카이유키(전남대),
고예린(전남대), 안진(전남대), 강영란(전남대), 박찬우(전남대), 김보미(전남대)

발행인: 국립국어원장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24년 11월 29일

발행일: 2024년 11월 29일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2024년 분야별 용어 정비’ 사업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

